

碩士學位 請求論文

元曉의 大乘起信論疏·別記에
나타난 實踐德目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高 漸 庸

1987年度

元曉의 大乘起信論疏·別記에
나타난 實踐德目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教育大學院國民倫理教育專攻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高 漸 庸

指導教授 高 性 俊

1987年 月 日

高漸庸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함

1987年 月 日

主 審 李萬成 (인)

副 審 安昶範 (인)

副 審 正 允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차 례

I. 緒 論	1
II. 大乘起信論疏·別記의 內容	4
1. 大乘起信論疏·別記의 概觀	4
2. 大乘起信論疏·別記의 마음의 構造	6
3. 覺에 대한 설명	8
(1) 本覺과 始覺의 四位	8
(2) 生滅의 四相	10
(3) 始覺의 四位와 生滅의 四相과의 關係	11
4. 不覺에 대한 설명	13
(1) 根本不覺	13
(2) 枝末不覺	14
III. 大乘起信論疏·別記에 관련된 實踐德目	18
1. 釋題名에서의 實踐德目	18
2. 分別發趣道相의 實踐德目	26
(1) 信成就發心の 實踐德目	26
(2) 解行發心の 實踐德目	29
(3) 證發心の 實踐德目	31
3. 修行信心分에서의 實踐德目	34
(1) 施	34
(2) 戒	35
(3) 忍	35
(4) 進	35
(5) 止觀	35
IV. 結 論	39
參 考 文 獻	41
Abstract	44

I. 緒 論

元曉는 印度佛敎, 中國佛敎를 韓國佛敎로 再創造한 人이며, 學僧이면서도 理論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그의 思想을 實踐으로 내보였다. 대중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佛敎를 일상 생활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¹⁾

元曉는 佛의 가르침을 깊고, 넓게, 정확히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많은 말을 썼지만 文字나 形式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될 것을 강조했고, 佛敎의 궁극적인 목표는 깊은 哲學과 아울러 항상 衆生을 구제하는 데 있음을 믿었다. 지방의 촌락, 술집, 거리 등을 돌아다니며 無碍瓠를 쥐고 無碍歌로써 춤추고 잡담하는 가운데 佛法을 널리 알리어 실생활을 佛敎化하는데 정성을 기울였다.²⁾

元曉는 百部論主라는 名號처럼 많은 著述을 남겼다. 그 중에서 그의 思想의 토대를 이룰 정도로 중요한 著書의 하나가 「大乘起信論疏·別記」라 할 수 있다. 中國 華嚴學의 大成者인 法藏, 賢首도 元曉의 「大乘起信論疏」를 보고 격찬했다.³⁾ 日本의 橫超慧日 教授는 元曉가 「起信論疏」를 통하여 「起信論」의 敎理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元曉의 佛敎는 「起信論宗」이라 불려도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大乘起信論」은 산스크리트(Sanskrit) 原典도 티베트(Tibet)譯도 없고 漢譯本 뿐이다. 漢譯에는 眞諦(Paramārtha 499~569)가 550年(梁代)에 번역한 舊譯 「大乘起信論」과 實叉難陀(Sikṣānanda 652~710)가 695年~704年頃에 번역했다는 新譯 「大乘起信論」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原著者는 「馬鳴菩薩」로 되어 있다. 元曉가 疏·別記를 쓴 것은 물론 舊譯 「大乘起信論」을 토대로 한 것이다. 산스크리트 原本이 없다는 점, 馬鳴이 지은 다른 現存著書 속에서 「大乘起信論」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 등에서 日本學者들 사이에 「起信論」이 中國僞撰이나 아니냐 하는 것이 논란되고 있다. 「大乘起信論의 研究」를 쓴 柏本弘雄의 주장처럼 龍樹 이후의 「佛所行讚」을 저술한 馬鳴과는 다른 同名異人의 著述로 보는 것이 알맞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⁵⁾

1) ① 一然, 「三國遺事」卷第四, 義解第五, 元曉不羈, 李丙燾譯註, (서울: 廣曹出版社) 1977, pp. 141~143, pp. 401~404 참조.

② 江田俊雄, 「朝鮮佛敎史의 研究」(日本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 52年), p. 8, 164, 470. 참조.

2) 李基白, 「韓國史新論」(서울: 一潮閣, 1976), pp. 101~102 참조.

3) 沈載烈, 「元曉思想」, (2) 倫理觀 (서울: 弘法院, 1983), p. 26 참조.

4) 橫超慧日, 「元曉의 二障義について」, 梁銀容編, 「新羅元曉研究」, (이리, 圓光大學校出版局, 1979), pp. 224~225.

5) 李平來(書評), 「大乘起信論」, 東亞日報社編 「역사를 움직인 100권의 책」, 新東亞, 1984年 1月號 부록, p. 25.

보통 論書는 어떤 특정한 經을 대상으로 논(論)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大乘起信論」은 어떤 특정한 經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起信論」은 佛敎의 여러 가지 敎理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⁶⁾ 元曉가 이 「起信論」을 중시하여 그의 思想의 토대가 된 것은 위와 같은 脈絡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六根(眼·耳·鼻·舌·身·意)이 뿔뿔이 흩어져, 一心의 源泉을 배반(背反)해서 부산한 먼지를 피우고 감각적인 말초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는 現代의 物質文明時代에, 우리는 利己心을 극복하고 우리의 눈을 안으로 돌려 우리 자신을 변혁시킬 필요를 느낀다.⁷⁾ 이러한 뜻에서 本論 文은 元曉의 「大乘起信論疏·別記」의 實踐德目を 살피려고 한다.

「大乘起信論」은 中觀派와 瑜伽派의 思想을 和合시켜 眞과 俗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迷劣한 現實生活 가운데(俗)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수행(修行)함에 의하여 完成된 人格(眞)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佛陀의 가르침을 잘 나타낸 論書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元曉가 「起信論」을 보고 감명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의 「起信論」에 대한 研究過程에서 쓴 別記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⁸⁾

〔中觀論〕이나 〔十二門論〕 같은 것은 극단적으로 모든 執著을 論破하고, 또한 破하는 것을 다시 破하여 부인하는 主體와 對象을 모두 긍정하지 않는다. 이는 부정해 가지만 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지 못하는 論이라 하겠다. 또 「瑜伽論」이나 「攝大乘論」 등은 길고 얕음을 전체적으로 설정하여 法門을 관할하지만, 스스로 세운 바 法을 버리는 融通性이 없어서 이는 배설기만 하고 배양하는 못하는 論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起信論」은 智와 仁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또, 심오하고 보편성을 띠고 있다. 주장하지 않는 것이 없는가 하면, 동시에 그것을 버리고, 타파하지 않는 것이 없는가 하면 동시에 그것을 긍정한다. 그리하여 그 긍정되는 것은 증명에까지 이르면 보편적인 주장이 드러나게 하고, 한편 부정되는 것은 그 긍정되는 것을 최종적인 곳까지 긍정하여 그것을 부정해 버린다. 이러한 論이야말로 모든 論의 祖宗이 되고, 모든 논평의 평가 기준이 된다.⁹⁾

6) 元曉, 「大乘起信論疏記會本」(李箕永「元曉思想」(1) 世界觀, 서울, 弘法院, 1972 부록1論, p. 14. ……亦有衆生復以廣論文多爲煩……廣說此論 참조.

이하 論, 疏 別記로 약칭하며 李箕永「元曉思想」부록의 페이지 수를 표시함.

7) 疏, p. 7 ……衆生六根 從一心起 而背自原, 馳散六塵…

8) ① 李箕永, 「元曉思想」, (1) 世界觀 (서울: 弘法院, 1972), pp. 51~53 참조.

② 李平來 “女來藏說과 元曉” 國土統一院編, 「元曉研究論叢」 (서울: 國土統一院, 1987), pp. 479~480 참조.

③ 金恒培, “元曉의 一心想의 本質과 그 論理的 構造”, 國土統一院編, 「元曉研究論叢」(서울: 國土統一院, 1987), pp. 139~141 참조.

9) 別記, p. 4.

如中觀論十二門論等 偏破諸執 亦破於破 而不還許能破所破. 是謂往而不漏論也. 其瑜伽論攝大乘等 通立深淺判於法門 而不融遺自所立法. 是謂與而不奪論也. 今此論者. 既智既仁. 亦玄亦博. 無不立而自遣. 無不破而還許. 而還許者 顯彼往者住極而漏立. 而自遣者 明此與者窮與而奪. 是謂諸論之祖宗. 群靜之評主也.

元曉가 말하는 것처럼, 「大乘起信論」은 모든 大乘經典이나 大乘論書의 根本精神을 간추려
·貫性 있게 다룬 唯一한 經典이기에, 本 論文의 Ⅱ章에서는 「大乘起信論疏·別記」의 마음을
중심으로 그 構造를 이해한 다음, Ⅲ章에서는 「大乘起信論疏·別記」에 관련된 實踐德目을 뽑
아내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大乘起信論疏·別記의 內容

1. 大乘起信論疏·別記의 概觀

「大乘起信論疏·別記」는 그 앞부분에서 「起信論」의 大意를 밝히었고(標宗體) 「大乘起信論」이다 題名을 설명한 다음 「起信論」의 文에 따라 疏를 붙여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 「大乘起信論」의 첫머리에는 三寶를 贊歎하는 敬虔한 詩로 시작되고 있다. 이 三寶贊에 대해 元曉는 一心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레설하고 있다.

[衆生の 六根(眼·耳·鼻·舌·身·意)은 하나의 마음(一心)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根源을 背反하고 馳騁이 하여서 六塵의 塵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제 목숨을 들어 6가지 감각적, 의식적 작용을 一心의 根源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歸命(Namo)이고, 그 하나인 마음이 三寶인 것이다.]¹⁰⁾

因緣分에서는 造論의 이유로 8가지를 말하고 있고, 立義分에서는 大乘의 의미를 밝히면서 論旨을 提示하고 있다. 大乘이 바로 우리의 마음(衆生心)이며 如來藏心이다.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世界의 事物(世間法)과 觀念(出世間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마음은 참되고 한결같은 모습(眞如), 즉 大乘의 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마음은 한편 因果의 法則을 통해 相對적이고 過渡的인 樣相을 나타내면 變化하고 있다. 그 變化의 모습 속에 大乘의 本體와 그 屬性(相)과 그 作用(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¹¹⁾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의 本體는 眞如平等, 不增不減하는 것이 體大, 그리고 如來藏에 헤아릴 수 없는 性功德을 갖추는 것이 相大, 일체의 世間, 出世間의 善의 因果를 낳는 것이 用大이라 하여 一心, 二門, 三大의 根本을 설명하고 있다.¹²⁾ 이것을 도표화하면 <표-1>과 같다.¹³⁾

10) 疏, p.7.

…衆生六根 從一心起 而背自原 馳散六塵, 今舉命總攝六情 還歸其本 一心之原 故曰歸命. 所歸一心 即是三寶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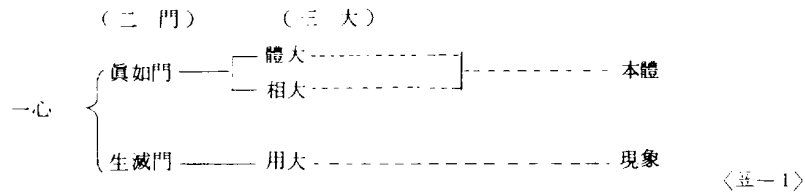
11) 論, p.16.

所言法者 謂衆生心. 是心則攝一切世間法出世間法. 依於此心顯示摩訶衍義. 何似故. 是心眞如相 即示摩訶衍體故. 是心生滅因緣相 能示摩訶衍自體相用故.

12) 論, p.16.

三者體大. 謂一切法眞如平等不增減故. 二者相大. 謂如來藏具足無量性功德故. 三者用大. 能生一切世間出世間善因果故. 一切諸佛本所乘故. 一切菩薩皆乘此法到如來地故.

13) 李箕永, 前揭書, p.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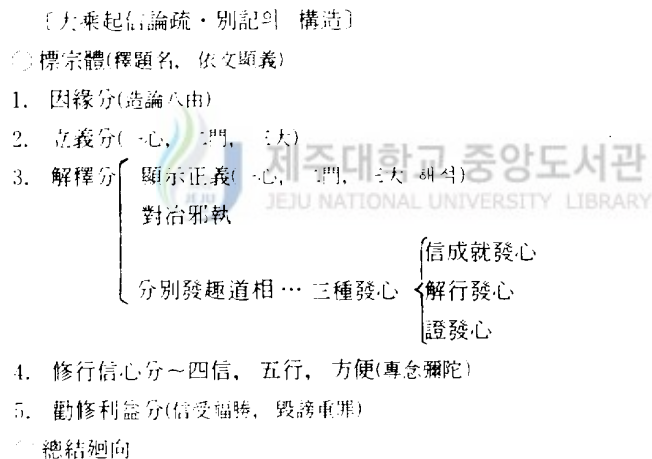


다음에는 解釋分으로 立義分을 해석하는 부분이다. 이 解釋分에는 顯示正義(바른 뜻을 나타내는 부분), 對治邪執(잘못된 고집을 고치는 부분) 分別發趣道相(마음을 어떻게 어떤 方向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分析的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分別發趣道相에는 세 가지 發心인 信成就發心, 解行發心, 證發心을 해설하고 있다.

修行信心分은 비교적 낮은 단계(十信이하의 凡夫)에 있는 衆生들의 信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信心修行의 道를 설명하고 있다. 즉 眞如, 佛, 法, 僧을 믿고(四信) 施, 戒, 忍, 進, 止觀의 五行을 따는 方法을 설명하고 있다.

勸修利益分에서는 「大乘起信論」의 眞理를 실천하면 어떤 有益함이 있음을 이야기하여 實踐을 권고하고 있고, 廻向頌으로 「大乘起信論」을 끝맺음을 하고 있다.¹⁴⁾

위의 內容을 도표화하면 〈표-2〉와 같다.¹⁵⁾



〈표-2〉

14) 論, p.110.

諸佛甚深廣大義。我今隨分總持說。廻此功德如法性。普利一切衆生界。

15) 高翔晉, “元曉의 起信論疏·別記를 통해 본 眞俗圓融無碍觀과 그 成立理論,” 東國大, 『佛敎學報』 第十輯, 1973, p.16 참조.

鼻識, 舌識, 身識이다. 이는 가장 낮은 단계의 마음으로 「前五識」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前五識」을 지배하며 그는 知覺의 價値를 부여하는 「마음」이 있다. 優劣, 善惡, 美醜, 好不好, 淨不淨 등의 判斷을 내리는 이 「마음」을 意識 또는 第六識이라 한다. 第六識은 보다 뿌리깊은 意識인 「나」라는 自我意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 「起信論」에서는 意 또는 末那意識이라 표현되어 있고, 보다 深層의 第八識과 연결되어 있다. 第八識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이 감춰진 모든 심리활동의 원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第八識은 본래 맑고 깨끗하며 고요한 마음을 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본바탕을 眞如, 如來藏, 一心이라 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第八識은 맑고 깨끗한 마음인 眞如가 간직해 있다. Ālaya 識, 藏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八識에는 맑고 깨끗한 바탕인 眞如인 面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지 못한 業報나 다른 영향으로 無明에 물드는 집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生滅門이라는 것이다.²⁰⁾

위와 같이 一心에는 二門 즉 眞如門과 生滅門이 있음을 논하고 있다.²¹⁾ 元曉는 生滅門 내에도 眞如門을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기와(瓦) 장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다른 陶器나 용기가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그 그것한 각각 다른 모양,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共通性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의 生滅하는 마음이 있어내는 온갖 양상과 기능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眞如한 本性을 共同的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²²⁾ 지금까지 內容을 李箕永 博士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즉, 우리의 마음을 如來藏의 마음으로 온갖 가능성이 모두 포괄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어지러워 날마다 좋지 않은 作用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나 그 內面 깊숙이 맑고 깨끗한 깨달음(眞如)이 있다. 비유하자면, 그것은 황급히 더러운 오물 속에 있는 것과 미친한 女인이 王子를 잉태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하나의 양상을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 心眞如와 心生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心眞如인 참되고 한결같은 本體로서의 마음은 心生滅과 다른 것은 아니다. 또한 이 항구 불변한 마음이 生滅하는 마음과 같이 있지만 그 둘이 별개의 實體는 아니다. 또한 그 반대로 하나인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면서도 하나인 것도 아닌 것을 「Ālaya 識」이라고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지만 이 「Ālaya 識」으로 하여 眞如의 世界와 現實의 世界가 같은 것으로 될 수가 있다.

19) 別記, pp. 30~31. 寂滅者名爲一心, 一心者名如來藏. …

20) 別記, p. 31.

十卷云, 如來藏阿梨耶識, 共七種識生, 名轉滅相, 如是等文 是顯梨耶生滅不覺之義

21) 論, p. 18.

依一心法有二種門… 一者心眞如門, 二者心生滅門.

22) 別記, pp. 19~20.

眞如門是諸法通相, 通相外無別諸法, ……是故皆名通攝一切理事諸法, 故言二門不相雜故.

은 이 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의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깨달음(覺)과 어리석음(不覺)이다. 깨달음(覺)은 바로 眞理의 世界인 온전한 마음일 것이며, 어리석음은 汚染된 現實世界일 것이다.²³⁾

3. 覺에 대한 설명

「起信論」은 우리의 마음의 構造에 대해서 覺이 되는 경우(맑고 깨끗하며 고요한 마음의 바탕인 眞如)와 不覺이 되는 경우를 밝히면서, 「不覺은 내대로 내려오는 根本不覺(無明)과 후천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後天不覺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不覺인 경우에도 眞如란 마음 자체가 지닌 不可思議한 심 때문에 本覺의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 覺을 始覺이라고 하나 사실은 始覺과 本覺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각도에까지 도달하라는 것이 아니다.

「起信論」은 이 始覺에 세 개의 단계가 있음을 밝히는데, 아직 멀었다는 뜻에서 不覺位 심으로 비슷하게 깨달음 相似覺, 조금씩 되어 간다는 뜻에서 隨分覺, 본래의 本覺자리로 왔다고 하는 究竟覺이 있다.

1) 本覺과 始覺의 四位

覺이란 우리 인간의 마음의 本體가 그릇된 생각들을 떠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세계를 眞理 그 自體로 삼는 마음이기 때문에 本覺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覺 자체이기만 하지 못하고 不覺이어서 覺을 향한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것을 완수해 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相對的으로 말해서 그 한 面을 始覺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生滅을 일으키는 그러한 覺이기 때문에 이를 始覺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本覺을 각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本覺 { 〇 法身に 의거하여 설해진다.
 〇 始覺에 대하여 쓰여진다.
 〇 始覺과 本覺은 本質上 같다.

그러면 始覺의 四位에 대하여 살펴보자. 始覺의 四位란 깨달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를 마음의 本覺의 계만을 통해 진정한 자기로 복귀하는 歸(本源) 단계에 해당하는

23) 李箕永, (書評) “大乘起信論·金剛三昧經論” 玄岩社 編, 「韓國의 名著」(서울:玄岩社, 1980), p.28.

24) ① 李箕永, 前掲書, 「元曉思想」, pp.142~146.

② Ock Hee Pyun, 前掲論文, pp.107~113 참조.

③ 論, p.32.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 無所不徧 法界一相 即是如來平等法身. 依此法身說名本覺. 何以故. 本覺義者 對始覺義說. 以始覺者 即同本覺. 始覺義者 依本覺故 而有 不覺. 依不覺故說有始覺.

것이다.

A. 不覺

이 단계는 凡夫들이 이전 생각들 속에서 일어났던 잘못들을 알고, 다시는 그에 따르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²⁵⁾ 그러나 여기서는 最下位의 깨달음이며 無我的 道理를 모르고 生死流轉의 길에 서 있는 단계이다.²⁶⁾

B. 相似覺

聲聞과 獨覺등 二乘의 修道者와 이제 방금 修道의 길에 들어선 菩薩(初發意菩薩, 즉 十解, 十住, 十廻向의 三賢菩薩)들은 忘念中에 나타나는 異相, 즉 한없는 욕심(貪) 시기·질투·분노하는 마음(瞋) 자신의 本體를 모르는 어리석음(癡) 교만한 마음(慢), 의심(疑), 고집(見) 등의 고릇된 모습을 깨닫고 그들의 생각에서 그러한 고릇된 모습을 없이하여 크게 分別하고 執著하는 모습을 버린다. 따라서 表面上 비슷한 깨달음, 相似覺이라고 한다.²⁷⁾

C. 隨分覺

法身菩薩등을 妄念 속에 있는 머물러 固執하는 모습(住相)을 깨달는 것이다. 「나」라는 생각, 모든 종류의 利己心이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깨닫고, 그 利己性을 없애, 크게 「나」와 「남」을 구별하면서 일으키는 거지른 생각의 모습을 버린다. 그러므로 거의 다된 깨달음, 隨分覺이라 부른다.²⁸⁾

D. 究竟覺

보살의 수행 단계들 모두 마친 보살은 方便을 만족시키고, 망령된 생각이 서로 없이 서로 응하니, 이 마음에 최초로 일으킨 것을 깨달아 마음에 처음의 망령된 모습이 없어짐으로써 미세한 망령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고 마음이 곧 常住한 것을 「究竟覺」이라 이름한다는 것이다.²⁹⁾ 「大乘起信論疏」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되고 있다. “無明은 완전히 없어지고 心の 源泉으로 복귀하게 되어 다시는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는 단계로, 다시 더

25) ① 論. p. 34.

如凡夫人覺知前念起惡故 能止後念令其不起. 雖復名覺 即是不覺故.

② Ock Hee Pyun. 前揭論文, pp. 117~119 참조.

26) 李箕永, 前揭書, p. 150.

27) ① 論. p. 34.

如二乘觀智 初發意菩薩等 覺於念異 念無異相. 以捨捨分別執著相故 名相似覺.

② 李箕永, 前揭書, p. 150.

③ Ock Hee Pyun. 前揭論文, pp. 120~121.

28) ① 論. p. 34.

如法身菩薩等 覺於念住 念無住相. 以離分別念相故 名隨分覺.

② 李箕永, 前揭書, p. 150.

③ Ock Hee Pyun. 前揭論文, pp. 121~122.

29) 論. p. 34.

如菩薩地盡 滿足方便 一念相應心初起 心無初相. 以遠離微細念故 得見心性 心即常住 名究竟覺.

나아갈 바가 없는 단계이다.”³⁰⁾

위 始覺의 四位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4>와 같다.

非究竟覺	不覺	凡 夫	妄念의 滅相을 覺
	相似覺	聲 聞 乘 獨 覺 乘 初 發 意 菩 薩	妄念의 異相을 覺
	隨分覺	法 身 菩 薩	妄念의 住相을 覺
究竟覺	究竟覺	佛	妄念의 生相을 覺

<표-4>

(2) 生威의 四相: 生·住·異·滅

A. 生相

이 生相을 한 생각이 생기는 基本的 體系로,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는 밑바탕의 뿌리이다. 그릇된 모든 생각의 뿌리에는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러한 생각을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原動力이 숨어 있다는 業相, 그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能動力으로 化(化)한다는 것인 轉相, 그리고 能動的 作用을 對象物에 나타내게 되는 現象이 있다. 이 業→轉→現의 基本的인 過程이 무엇을 생기게 하는 메카니즘(Mechanism)이라는 것이다.³¹⁾

B. 住相

여기서 住相이란 상당히 뿌리깊이 안주(安住)하여 고질(痼疾)처럼 된 상태이다. 자기에 대한 애착인 我愛,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을 모르는 어리석음인 我癡, 자기 자신을 모르고 거짓 자기에 애착을 느껴면서 慢心을 품고 있는 我慢, 자기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주의, 주장, 편견을 갖고 그것을 내세우는 我見의 모습이다. 이 네 가지 모습은 第七識 「Manas識」에 자리잡고 있다.³²⁾

C. 異相

그릇된 自我意識이 無明의 習氣를 타고 더욱 무명(無明)스러워진 모습이다. 달라진, 부패해

30) 疏. p. 38.

無明永盡 歸一心源 更無起動. 故言得見心性 心即常住. 更無所進 名究竟覺.

31) 疏. p. 35.

一名業相. 謂由無明不覺念動. 雖有起滅見相未分. 猶如未來生相將至正用之時. 二者轉相. 謂依動念轉成能見. 如未來生至正用時. 三者現象. 謂依能見現於境相. 如未來生至現在時. 無明與此三相和合. 動一心體隨轉之現.

32) 疏. pp. 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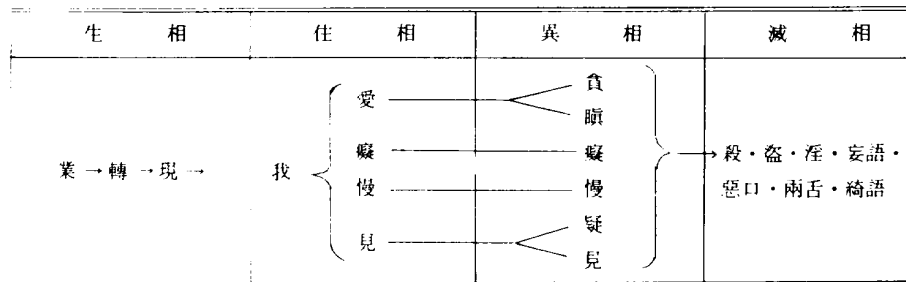
住相四者. 由此無明與生和合 迷所生心無我我所 故能生起四種住相. 所謂我癡我見我愛我慢. 如是四種依生相起能相心體 令至住位內緣而住 故名住相. 此四皆在第七識位.

진 모습인 것이다. 我愛, 我癡, 我慢, 我見이 한층 부패해져 貪·瞋·癡·慢·疑·見의 타락한 마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역시「大乘起信論疏」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섯 가지 異相이란 無明과 住相이 화합(和合)함을 말하니, <내>가 空하고, 나 이외의 客觀의 事物도 空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여섯 가지 異相을 일으키니, 곧 탐욕(貪), 질투와 시기(瞋), 어리석음(癡), 자기고집(見)이다. 이 여섯가지는 生起識의 地位에 있다.”³³⁾

D. 滅相

위 異相인 마음가짐은 滅相인 行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心眞如인 面을 찾아볼 수 없고 殺·盜·淫·妄語·惡口·兩舌·綺語의 行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³⁴⁾

지금까지 四相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면 다음 <표-5>와 같다.³⁵⁾



<표-5>

(3) 始覺의 四位와 生滅의 四相과의 관계³⁶⁾

앞에서 마음 하나를 잘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타락의 길로 걸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타락의 길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本覺의 영향을 받으며, 즉 淨法熏習으로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을 갖고 닦아一心으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³⁷⁾

33) 疏, p. 36.

異相六者, 無明與彼住相和合 不覺所計我我所空 由是能起六種異相. 所謂貪瞋癡慢疑見…… 無明與此六種和合 能相住心令至異位外向繫緣 故名異相. 此六在於生起識位.

34) 疏, p. 36.

滅相七者, 無明與此異相和合 不覺外塵違順性離 由此發起七種滅相. 所謂身口七支惡業. 如是惡業 能滅異心令墮惡趣 故名滅相.

35) 李箕永, 前揭書, p. 155, 219참조.

36) ① 疏, pp. 34~38참조.

② 殷貞姬, “大乘起信論疏·別記에 나타난 元曉의 一心思想”(哲學博士學位論文, 高麗大學校, 1982), pp. 42~51

37) 論, p. 71.

云何熏習起淨法不斷. 所謂有眞如法故 能熏習無明. 以熏習因緣力故 則令妄心厭生死苦 舍求涅槃. 以此妄心有厭求因緣故 即熏習眞如 自信已性 知心妄動 無前境界 修遠離法. 以如實知 無前境界故 種種方便 起修隨順行 不取不念. 乃至久遠熏習力故 無明則滅. 以無明滅故 心無有起. 以無起故 境界隨滅. 以因緣俱滅故 心相皆盡 名得涅槃 成自然業.

A. 不覺의 단계

滅相의 잘못을 깨달아 극복하는 단계이다. 즉 七支惡業(殺·盜·淫·妄語·惡口·兩舌·綺語)을 하지 않는 단계이다. 十信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하며, 없애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알았지만, 하지 않고, 없애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교만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根本眞理를 모르는 단계이다.³⁸⁾

B. 相似覺의 단계

異相을 극복하는 단계이다. 변화무쌍(變化無常)한 物質的·生理的·感官的·心理的 要素들로 구성된 「내」가 아무런 執著의 對象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나」에 대한 執著(我執)이 하할 것 없다는 이치를 깨달은 것이다. 또 六種異相(貪·瞋·癡·慢·疑·見)이 하할 것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분별이 없는 깨달음은 얻지 못하는 단계이다.³⁹⁾

C. 隨分覺의 단계

住相을 극복하는 단계이다. 「내」가 마치 절대적인 것이거나 한 것처럼 「나」라는 意識에 사로잡혀 상태까지 벗어난다. 「바깥」로 고정하는 모습(住相)이 없다. 「나」를 모르는 이리식승인 我癡(「나」를 「내」로 고집함) 我見, 「나」만 중히 여기는 我愛, 「나」에 대한 교만의 我慢이 극복되는 단계가 隨分覺의 단계이다. 그러나 「나」와 「너」를 구분(分別)하지 않는 智慧가 생겼으나 마음의 말바닥에 깔려 그것만 모든 생각의 뿌리, 즉 「生相」은 아직도 남아 있는 단계이다.⁴⁰⁾

38) 疏, p. 37.
 初位中言如凡夫人者 是能覺人 位在十身也。覺知前念起惡者 顯所覺相。未入十信之前具起七支惡業。今入信位 能知七支實爲不善。故言覺知前念起惡。此明覺於滅相義也。能止後念令不起者 是覺利益。前由不覺 起七支惡念。今既覺故 能止滅相也。言雖復名覺即是不覺者 明覺分齊。雖知滅相實是不善 而猶未覺滅相是夢也。

39) 疏, p. 37참조.
 『第二位中言如二乘觀智初發意菩薩等者 十解以上三賢菩薩。十解初心 名發心住。舉此初人兼取後位 故言初發意菩薩等。是明能覺人也。覺於念異者 明所覺相。如前所說六種異相 分別內外計我我所。此三乘人了知無我 以之故言覺於念異。欲明所相心體無明所眠 夢於異相 起諸煩惱。而今漸與智慧相應。從異相夢而得微覺也。念無異相者 是覺利益。既能覺於異相之夢。故彼六種異相永滅。以之故言念無相也。捨離分別執著相故名相似覺者 是覺分齊。分別遠離即貪瞋等 是名應分別執著相。雖捨如是免執著想 而猶未得無分別覺 故名相似覺也。』
 Ock Hee Pyun, 前掲論文, pp.120~121참조.

40) 1) 疏, p. 37.
 第三位中法身菩薩等者 初地以上十地菩薩 是能覺人也。覺於念住者。住相之中 雖不能計心外有塵。而執人法內緣而住。法身菩薩通達二空。欲明所相心體前覺異相 而猶眠於住相之夢。今與無分別智相應。從住相夢而得覺悟。故言覺於念住。是所覺相也。念無住相者 四種住相滅而不起 是覺利益也。以離分別執念相者。人我執 名分別。簡前異相之應分別。故名不龜。法我執 名爲龜念。異後生相之微細念龜念。雖復已得無分別覺 而猶眠於生相之夢 故名隨分覺。
 2) 李箕永, 前掲書 『元曉思想』 p. 153.

D, 究竟覺의 단계

「그릇된 생각이 일어나는 모습」(生相)이 없어진 단계로 眞如, 法身の 理를 완전히 도달한 단계이다. 「그릇된 생각의 뿌리」에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즉 業相, 轉相, 現相이 그것이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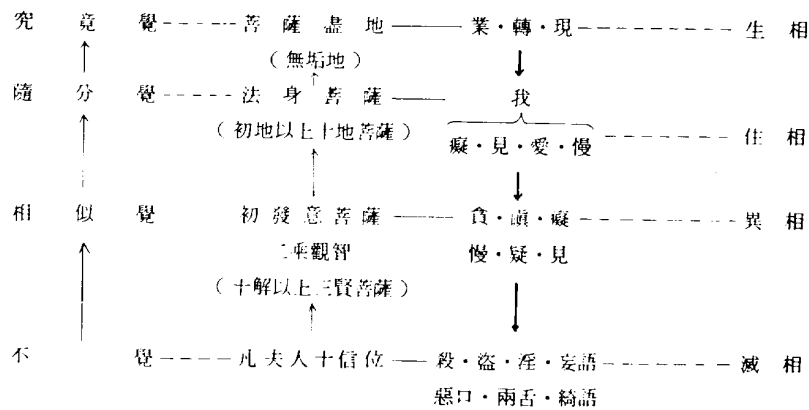
業相~主觀과 客觀을 분립시키는 잠재적인 原動力

轉相~能動的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일

現相~그 생각이 被動的으로 反映된 客觀相

위의 세 가지 過程인 不完全성이 없어진 단계가 究竟覺의 段階인 것이다.

지금까지 始覺의 四位와 生滅의 四相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⁴²⁾



4. 不覺에 대한 說明



앞에서 <覺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았는데, 「마음」의 樣相은 「覺」만 되지 않고, 그 움직임이 잘못하여 不覺의 方向으로도 나아간다. 不覺에는 根本無明인 不覺과 그로부터 派生되어 가지가지 항할어지는 枝末不覺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根本不覺

根本不覺이란 있는 그대로 眞如가 하나라는 眞理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는 混迷 때문에 그릇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 忘念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한 忘念을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本覺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마치 그것은 여기 에 길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가 어디로 가야 할 方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方向을 잘못 놓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衆生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 깨달았

41) 上揭書, p.154.

42) ① 上揭書, p.219참조.

② 本 論文 p.10 <표-4> 참조.

나 하면 옳은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릇된 깨달음이 생긴 것이며, 覺이란 本性을 떠나 不覺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깨달음(眞覺)을 말하는 것은 不覺, 忘想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까닭에 이 不覺과의 관계 아래서 말해지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不覺, 忘念을 떠났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眞覺이다, 이것이 眞覺의 固有한 性格이다 하면서 말할 만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⁴³⁾

이 根本不覺을 우리 마음의 永遠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根本的인 迷惑인 無明, 根本無明인 것이다. 그러나, 이 無明이나 不覺이나 眞如나 하는 그 모든 이름은 相對的으로 이야기된 假名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固有한 實體를 가진 것인 양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⁴⁴⁾

12) 枝末不覺⁴⁵⁾

위의 根本不覺인 無明이 眞如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 妄心이 있게 되고 業識이 妄心은 도리어 無明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어 眞如法에 더욱 멀어져 不覺의 念이 일어나 轉識, 妄境界를 나타낸다. (現識)이 妄境界가 도리어 現識을 熏習하여 念着하게 하여 智識(種種의 業을 지어 智識) 一切身心的 熏을 받는 데에 이른다라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三細六麁인 것이다. 즉 사람의 생각이 다량의 감을 주는 流轉의 과정을 因果關係로 설명한 것이다. (三細 중 無明業相·業識은 生滅의 根本原因을 말할 것이고 能見相·轉識, 境界相·現識)은 그 根本原因 때문에 동시에 나타나는 主觀과 客觀의 분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能見이란 주관이고, 境界란 客觀의 분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能見이란 주관이고, 境界란 객관적인 대상이다. 能見이란 적극적, 능동적으로 무슨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요, 境界란 그렇게 할 때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의 境界인 것이다. 이 三細는 根本不覺인 無明에서 직접 湧起된 것으로 그 相이 매우 미세(微細)하기 때문에 다음 六麁에 대하여 三細라 불리우는 것이고 六麁은 더욱 거칠게 사유(思惟)되고 行動化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A. 無明業相·業識

不覺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을 業이라 하니, 깨달으면 동요가 없고, 동요가 있으면 고통이 있다. 結果와 原因이 불가불리의 관계에 있는 相이다. 이 業相은 動念은 있으나 극히

43) 論. p. 45 참조.

所言不覺義者. 謂不如實知眞如法一故. 不覺心起而有其念. 念無自相. 不離本覺. 猶如盲人依方放迷. 若離於方則無有迷. 衆生亦爾. 依覺放迷. 若離覺性. 則無不覺. 以有不覺妄想心故能知名義爲說眞覺. 若離不覺之心. 則無眞覺自相可說.

疏. p. 45 참조.

初中亦三. 先明不覺依本覺立. ……第一義諦亦有實. 此之謂也.

44) 李延承, 前揭書, p. 177.

45) 別記. p. 46 참조.

此中先三相是微細. 猶在阿梨耶識位. 後六麁相. 是餘七識. 但望彼根本無明. 皆是所起之末. 通名枝末不覺也.

46) 殷貞姬, 前揭論文. p. 36.

미세(微細)하여 主觀[能]과 客觀[所]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⁴⁷⁾

B. 能見相(轉識)

위의 業相에 의해 선전(展轉)하여 能見相을 이룬 것이다. 이 能見은 肉眼으로 對象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극히 微細한 認識作用인 것이다.⁴⁸⁾

C. 境界相(現識)

앞의 轉相에 의해 境界를 드러내는 것이다. 『起信論』에서 「主觀의 見解가 있으므로 잘못된 境界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見解를 떠나게 되면 곧 境界는 없어진다는 것이다.⁴⁹⁾

三細의 마지막 境界相(現識)에 의하여 여섯 가지 거친 모습(六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智相(智識)

七識의 거친 모습의 시작이다. 善道에 있으며, 愛의 法을 分別하여 <나>와 <대상>을 헤아린다. 惡道에 있을 때는 不愛의 法을 分別하여 <나>와 <대상>을 헤아린다. 本識에 관련하여 <나>를 헤아리게 되고, 나타난 境界와 관련하여 대상을 생각해내는 것이다.⁵⁰⁾

○相續相

앞의 智相에서 생긴 愛憎등의 妄分別의 일단 생긴 뒤, 끊기지 않고 “苦다, 樂이다.” 하는 생각이 부단히 상속하는 모습을 말한다.⁵¹⁾

○執取相

앞의 相續相 때문에 因緣마다 境界를 생각하고 苦樂의 境界에 대한 執著을 일으켜 가는 모습이다.⁵²⁾

○計名字相

앞의 虛妄執著이 더욱 커지면 다시 그 위에 헛된 名字語句를 내세우고 더욱 조잡(粗雜)한 我執을 일으킨다.⁵³⁾

47) 論, p. 46참조.

一者無明業相。以依不覺故心動。說名爲業。覺則不動。動則有苦。果不離因故。」

疏, p. 46.

然此業相雖有動念。而是極細能所未分。

48) 殷貞姬, 前揭論文, p. 37참조.

49) 論, p. 46.

三者境界相以依能見故境界妄現。離見則無境界。

50) 疏, p. 48참조.

次別釋中 初之一相 是第七識。次四相者 在生起識。後一相者 彼所生果也。…若在善道 分別可愛法 計我我所。在惡道時 分別不愛法 計我我所。故言依於境界心起分別愛與不愛故也。…而今此中就其麤顯 故說依於境界心起。又此境界不離現識。……此第七識直爾內向計我我所 而不別計心外有塵。故餘處說還緣彼識。

51) 李箕永, 前揭書, p. 186. 참조.

殷貞姬, 前揭論文, p. 39참조.

52) 論, p. 48참조.

三者執取相。依於相續 緣念境界 任持苦樂 心起著故。

53) 論, p. 48참조.

四者計名字相。依於妄執 分別假名言相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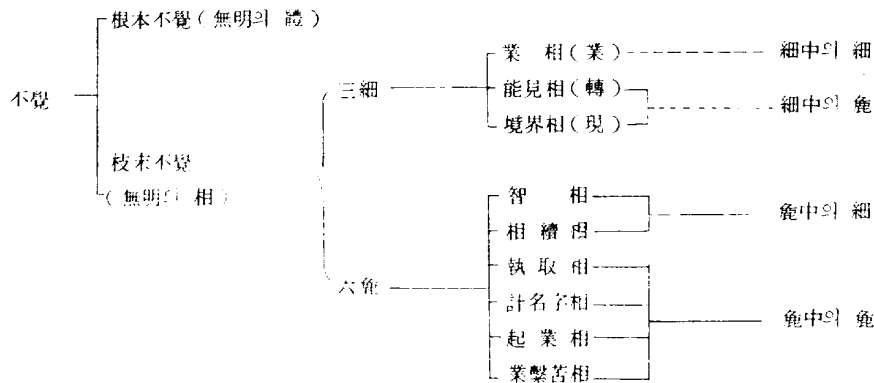
○起業相

計名字相까지는 생각으로 짓는 조잡한 모습들이었다. 이제는 조잡(粗雜)한 執著은 또디어 말과 行動으로 나타나 善惡의 起業을 짓는 起業相이 되는 것이다.⁵⁴⁾

○業繫苦相

業을 지으면 그것을 原因으로 하는 苦痛스러운 結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業이 苦痛으로 묶이게 하여 不自由하고 自在할지 못한 境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⁵⁵⁾

지금까지 不覺에 대한 설명을 보표를 통해 보면 다음 <표-6>과 같다.⁵⁶⁾



<표-6>

지금까지 살펴 본 枝末不覺의 三細六塵은 根本無明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無明이 있는 곳에 不覺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人間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始覺의 四位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人間의 마음을 알고 닦아 法身の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반면에 마음 씩씩이를 잘못해서 한없는 타락의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말자는 元曉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元曉가 三細六塵의 說明과 五蘊의 설명을 관련시킨 점을 표를 통하여 보면 다음 <표-7>과 같다.⁵⁷⁾

계속하여 始覺의 四位, 生滅의 四相, 三細六塵 등을 관련시켜 표를 통해서 보면 다음 <표-8>과 같다.⁵⁸⁾

54) 論, p. 48참조.

五者起業相, 依於名字尋名取著 造種種業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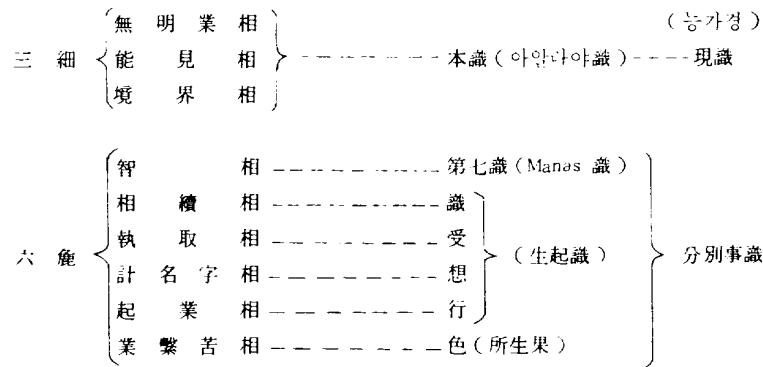
55) 論, p. 48참조.

六者業繫苦相, 以依業受果 不自在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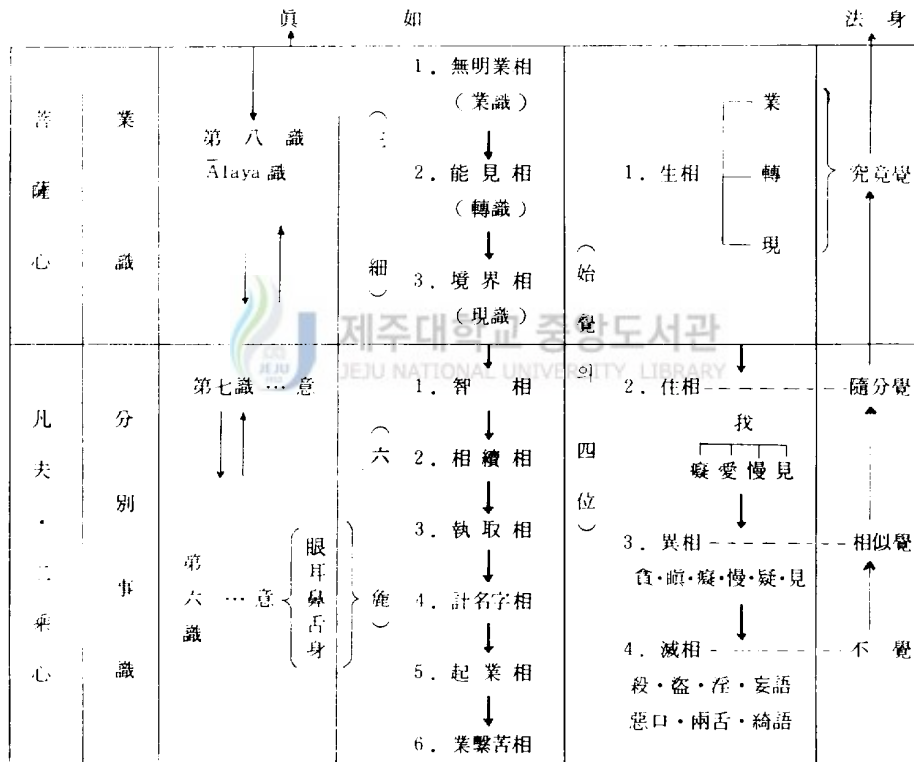
56) 吳杲山, 「大乘起信論講義」(서울:寶蓮閣, 1980), p. 146참조.

57) 李箕永, 前揭書, p. 187.

58) 李箕永, 前揭書, p. 300참조.



< 丑 - 7 >



< 丑 - 8 >

Ⅲ. 大乘起信論疏·別記에 關連된 實踐德目

앞에서 大乘起信論疏·別記의 「마음」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많은 實踐德目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앞서 우선 大乘起信論疏·別記의 釋題名에서의 實踐德目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釋題名에서의 實踐德目

「大乘起信論」의 題名에 대한 풀이에서 「虛空藏經」을 통해 大乘을 다음과 같이 수레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⁵⁹⁾

大 乘	{	수레 바퀴.....四攝法
		바퀴살.....十善業
		수레바퀴.....功德資量
		수레와 바퀴를
		연결하는 것.....堅固淳至專意
		소.....四無量心
		수레부리는 사람.....善知識
		움직이는 시기.....知時非時爲發動
		재적.....無常, 苦, 空, 無我
		받침.....七覺支
		연결짓는 받침.....五眼
		깃발.....大慈悲
		수레 뒷턱의 기움대.....四正勤
		車體의 받침.....四念處
		빨리 달려감.....四神足
		陣中을 살핌.....五力
直進.....入聖道		
수레.....障礙없는 智慧		
方便.....六波羅密, 無礙의 四諦		

(1) 四攝法

衆生을 구제할 때에 하는 네 가지 基本的인 態度이다.⁶⁰⁾

59) 疏, p. 5.

如虛空藏經言, 大乘者, 謂無量無邊無崖故, ……以無礙四諦度到彼岸, 是爲大乘.

60) 沈載烈, 「元曉思想」(2) 倫理觀(서울: 弘法院, 1983), pp. 97~98.

○布施⁶¹ : 財施, 無畏施, 法施

○愛語

○利行

○同事

(2) 十善業

○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惡罵

○不兩舌 ○不綺語 ○不慳貪 ○不瞋恚 ○不邪見

(3) 功德資量

大乘의 證果를 얻으려고 하면 마땅히 善根功德으로 資助할 것, 모든 착한 마음을 일으킬 것.

(4) 堅固淳至專意

堅固하고 순박한 마음, 그리고 한결같은 의지를 수레와 바퀴를 연결하는 것으로 비유했다.⁶²

(5) 善知識

善知識은 菩薩의 道로 인도하는 사람, 즉 스승을 말하겠는데, 수레부리는 곱로 비유했다.⁶³ 그런데 善知識이 있어도 그와 못지 않게 熏習의 內的要因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起信論」은 다음과 같이 시사하여 주고 있다.⁶⁴

「또 佛의 가르침에는 內的인 原因과 外的인 條件이 다 갖추어져야 무슨 일이 成就되느냐 하나의 通則이 있다. 마치, 나무가 불타는 것은 나무 속에 불타기 만한 성질이 있어, 그것이 內的인 原因이 되는 것인데, 만일 사람이 불을 켜대는 外的인 契機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나무가 지질로 불타는 일이 없는 것이다.

衆生도 역시 이와같이 마음속에 無明을 打破할만한 眞如의 熏習力이란 內的인 原因이 있지만 부처님·보살·善知識 등을 만나는 外的인 契機가 없으면 능히 스스로 煩惱를 끊고 涅槃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外的인 契機는 되어 있더라도 內的으로 깨끗한 法의 熏習하는 힘이 없다면 역시 生死의 苦를 버리고 涅槃의 즐거움을 구할 수가 없다. 만일 因과 緣이 갖추어진

61) 論, p. 93참조.

若見一切來求索者 所有財物隨力施與 以自捨慳貪 令彼歡喜. 若見厄難恐怖危逼 隨已堪任 施與無畏. 若有衆生來求法者 隨已能解 方便爲說. 不應貪求名利恭敬.

62) 疏, p. 5.

以堅固淳至專意爲輻輳釘鑄.

63) 疏, p. 5.

以善知識爲御者.

64) 論, p. 73.

又諸佛法有因有緣. 因緣具足. 乃得成辦. 如木中火性 是火正因. 若無人知 不假方便能自燒 木 無有是處. 衆生亦爾. 雖有正因熏習之力 若不遇諸佛菩薩善知識等以之爲緣 能自斷煩惱入涅槃者 則無是處. 若雖有外緣之力 而內存法未有熏習力者 亦不能究竟厭生死苦樂求涅槃. 若因緣具足者 所謂自有熏習之力 又爲佛菩薩慈悲願護故 能起厭苦之心 信有涅槃 修習善根. 以修善根成熟故 則值諸佛菩薩示教利喜 乃能進趣向涅槃道.

사람이라면 스스로 熏習의 힘이 있고, 또 부처님·보살 등의 慈悲의 願護를 받는 까닭에 능히 苦痛을 멀리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涅槃이 있음을 믿으며, 善根을 닦아 成熟시키므로 부처님·보살 등을 만나 그 보여준 가르침의 이로움과 기쁨을 따르게 되고, 涅槃의 길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6) 四無量心⁶⁵⁾

○慈(Maitri) :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 衆生을 愛念하여 항상 安隱하고 즐거운 일로 饒益하게 함.⁶⁶⁾ (慈名愛念衆生 常求安隱樂事以饒益之)

○悲(Karuna) : 衆生을 불쌍히 생각하여 고통을 제거하여 줌.⁶⁷⁾ (大悲憐愍衆生苦亦能令解脫苦)

○喜(Mudita) : 남이 樂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捨(Upeksa) : <平安한 마음>, 苦樂 喜悲를 초월하여 마음의 平安을 얻는 것.

(7) 知時非時爲發動

때와 때 아닌 것을 아는 것,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8) 無常·苦·空·無我的 깨달음.

○無常의 깨달음

세상 모든 存在는 永遠不變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깨달음.

○苦의 깨달음.

人生은 고통(苦痛)스럽다는 사실의 깨달음. 여기서 智慧를 닦음으로써 苦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法이 나오는 것임. (解脫)

○空의 깨달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無常한 存在이므로 確固不動한 實體가 없다는 사실의 깨달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면 안 되겠음. 「色即是空, 空即是色」을 연관시킬 수 있겠다.]

○無我的 깨달음.⁶⁸⁾

心理的·感官的·物質的 要素로 구성된 「나」는 이름일 뿐 진정으로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은 本質上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의 깨달음.

(9) 七覺支⁶⁹⁾

○擇法 : 지혜의 힘으로 모든 法의 善·惡·邪·正을 잘 가리며 내어 善正을 취하고 惡·邪를 버리는 것.

65) ① Edward Conze, “慈悲喜捨에 관하여”, 佛敎研究 1, 서울 : 韓國佛敎研究院, 1985, pp. 163 ~186 참조.

② 李箕永, 「佛敎概論」(서울 : 韓國佛敎研究院, 1985), p. 32.

66) T.1509(Vo125) 大智度論, K 20, p.208 ㉠.

朴先榮, 「佛敎의 敎育思想」(서울 : 同和出版社, 1981), p. 55에서 재인용.

67) 上揭書, p. 56.

68) 李箕永, 前揭書「元曉思想」 p.39

69) ① 李鍾益, 「佛敎思想概論」, 서울 : 宣文出版社, 1983, p. 118.

② 李箕永, 前揭書「佛敎概論」 p.32

○精進：修行하는데 바른 것을 따라 나가라고 쓸데 없는 苦行 등을 버리고 一心精進하여 나아가는 것.

○喜：끊임없이 精進하므로 그 결과로 삼된 道の 기쁨을 얻는 것.

○輕安：煩惱 등을 끊어 버리고 올바른 善根을 길러,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것.

○捨：그 마음이 모든 경계에 平等하여 外界에 대한 執著을 버리는 것.

○定：고요히 定에 들어서 煩惱, 妄想을 일으키지 않는 것.

○念：마음의 安定과 智慧의 機能을 均等하게 해서 一心에 찬 것.

(10) 四正勤⁷⁰⁾

○未生惡令不生(생기지 않은 惡은 버리 방지할 것)

○已生惡令永斷(이미 생긴 惡은 아주 끊어 버릴 것)

○未生善令生(이전 생기지 않은 善은 생기게 할 것)

○已生善令增長(이미 생긴 善은 더욱 증대시킬 것)

(11) 四念處⁷¹⁾

○身念處(몸은 不淨하다고 생각하는 것)

○受念處(感覺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心念處(생각은 無常하다고 생각하는 것)

○法念處(모든 것은 無我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四念處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顛倒見)을 고친다. 예를 들면 자기의 몸은 不淨하다고 생각함으로써 몸에 대한 愛着을 끊어, 男女의 愛欲이나 權力, 財產, 名譽에 대한 貪欲·虛榮心이 淨化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四念處觀」을 닦아 성취하면 凡夫의 妄見·妄執을 여의고 올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것이다.

(12) 四神足⁷²⁾

○欲神足：위에서 四正勤, 四念處를 닦는 힘에 의하여 求道心이 강렬하여서 공부하고 싶은 대로 되는 마음.

○勤神足：精進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절로 強하여지며 물러감이 없이 한결같이 진행되는 것.

○心神足：바른 생각이 한결같이 지속되어 나아가는 것.

○觀神足：禪定이 뜻대로 잘 된다는 것.

(13) 八正道

○正見 ○正思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

70) 上揭書, p. 31.

71) 李鍾益, 前揭書, pp. 113~115.

李箕永, 上揭書, p. 31.

72) 李鍾益, 前揭書, p. 116.

(14) 五力

修行을 하여 다함에 있어서 필요한 信·精進·念·定·慧의 다섯 가지로 발휘되는 힘.

(15) 六波羅密⁷³⁾

六波羅密은 現實的 此岸 苦痛, 貧窮, 罪惡의 苦爲의 集法, 嫉妒, 忿怒, 對立, 鬭爭의 世界, 懶弛의 行爲의 散亂의 愚昧한 人間 群像의 角場所인 此岸에서 理想的 「彼岸」으로 轉하는 것이었다. 이 「彼岸」에 이르는 要因은 外面的 課題로서 施·戒·忍으로, 內面的 課題로는 勤·定·慧로 提示한 것이라는 것이다. 解深密經은 六波羅密의 「此岸」의 狀況을 克服하고 彼岸에 이르도록 하는 德行을 다음과 같이 規定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 施~對治慳貪 除去貧窮
- 戒~對治惡業 身心清涼
- 忍~對治瞋恚 其心安住
- 勤~對治懈怠
- 定~對治散亂 攝持內意
- 慧~對治愚癡 破了諸法實相

계후하여, 李箕永 博士는 이의 經典을 참고하여 <표-10>과 같이 六波羅密에 대하여 表를 제시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다.⁷⁴⁾

(16) 無碍의 四諦⁷⁵⁾

諦라는 것은 <眞理의 道理>, <깨달음>의 뜻이니 <人生問題와 그 解決方法에 관한 4가지 깨달음>이 되었다.

○苦諦: 人生은 <苦>라고 하는 깨달음.

八苦~生老病死(四苦):

- 愛別離苦(사랑의 苦痛)
- 怨憎會苦(마음의 苦痛)

求不得苦(所有欲으로 인한 苦痛)

五取蘊苦(人間의 諸條件을 取함으로 인한 苦痛)

○集諦: <苦痛의 原因>이 되는 <煩惱>(無知와 欲望, 執着)의 깨달음, 貪(淫), 瞋(怒), 癡(痴)의 三毒이 이 괴로움을 낳는다는 깨달음.

○滅諦: 苦痛의 原因인 煩惱를 絶滅한 상태, 즉 涅槃이 있다는 깨달음.

○道諦: 八正道가 이 고통을 消滅하는 참된 진리며 方法이라고 하는 깨달음.

73) 李箕永, “佛敎와 近代의 人間型”, 『韓國佛敎研究』, 서울: 韓國佛敎研究院, 1982), pp. 609~614.

74) 上揭書, p. 610.

75) ① 李箕永, 前揭書『佛敎概論』, p. 24.

② 대원정사천집부 編, 『100문 100답』, (서울: 대원정사), 1987, p. 168.

1. 財施
- 佈施 { 法施 中施既經書具足十五 (寶雲經) }
 - 無畏施 法施, 無畏施, 財施, 不受財施, 破惡施, 不輕心施, 尊敬施, 十善, 一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邪見, 不呷口, 不呷舌, 一不飲酒, 不食肉, 不瞋, 不誑, 不誑見
 - 恭敬承事施 恭敬承事施, 不求有施, 清淨施
 - 持 { 攝律儀成 (中護戒止戒) 十重禁 (女轉經) }
 - 攝善法戒 { 持戒 盜戒, 姦戒, 妄語戒, 誑語戒, 誑問業道戒 }
 - 自學身戒成, 樂借加設成, 瞋心不受物成, 諸三寶成
 - 攝眾生戒 (隨益有情成, 作利眾生戒, 攝利眾生戒, 作眾生益戒)
 - 忍 { 制怨忍 (受怨事忍, 他身辱忍, 作忍忍, 不擔有情任持) }
 - 安受苦忍 (安苦忍, 忍苦忍, 捨下劣心任持) }
 - 十忍 { 內忍, 外忍, 法忍, 佛印可忍, 平等忍, 不疑事忍, (寶雲經) }
 - 不疑動忍, 慈忍, 舞觀忍, 無刀所忍, 九轉忍 }
 - 自持忍, 一切忍, 難行忍, 一切門忍, 苦上忍, (樂隨助地論) }
 - 一切難忍, 逐求忍, 此世世樂忍, 清淨忍
 - 諍訟法忍 (法忍前忍, 觀察法忍, 無生法忍任持) }
 - 十忍 { 內忍, 外忍, 法忍, 佛印可忍, 平等忍, 不疑事忍, (寶雲經) }
 - 不疑動忍, 慈忍, 舞觀忍, 無刀所忍, 九轉忍 }
 - 自持忍, 一切忍, 難行忍, 一切門忍, 苦上忍, (樂隨助地論) }
 - 一切難忍, 逐求忍, 此世世樂忍, 清淨忍
 - 精進 { 波申精進 (波烈精進, 勤勇精進, 勇猛精進) }
 - 攝善精進 (踐行精進, 加行精進, 行精進) }
 - 大樂莊嚴經論 { 空智精進, 踐行精進, 無上精進 }
 - 不動而進, 無取精進
 - 利眾精進 (無上智無非轉無有足精進, 不怯弱不憚苦精進, 隨法行持精進) }
 - 九轉相 (樂助助地論) }
 - 日性精進, 一切靜慮, 難行靜慮, 苦上靜慮 }
 - 一切轉靜慮, 逐求靜慮, 此世世樂靜慮, 清淨靜慮
 - 船 { 安住靜慮 (安樂住靜慮, 安樂住定) }
 - 引導靜慮 (出生靜慮, 引導通定) }
 - 定 (對治風息, 攝持內意) ... 情上心學 }
 - 水內通隨
 - 解有靜慮 (成所作事靜慮, 作所應作靜慮, 隨前通定) }
 - 總 (對治愚癡 曉了諸法實用) ----- 智慧資糧 }
 - 永不隨眠
 - 船 { 無分別加行慧 (無分別方便智, 無分別加行般若, 緣世俗慧) }
 - 無分別忍 (無分別智, 緣勝義慧) }
 - 無分別後得慧 (無分別後得智, 緣有情慧)

- (17) 「對法論」을 인용하며 大乘을 설명하는 부분에서의 實踐德目은 다음과 같다.⁷⁶⁾
- 境大性：境界가 크다는 것. 菩薩道の 입장에서 수백 수천의 무수한 경전의 廣大한 教法을 경계로 하기 때문이다. (一境大性, 以菩薩道緣百千等無量諸經廣大教法爲境界故.)
 - 行大性：行爲의 위대성. 자신의 利益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廣大하고 올바른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二行大性, 正行一切自利利他廣大行故.)
 - 智大性：지혜의 위대성. 모든 사물의 個別的 實體란 절대적인 實體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깨닫는 것. (三智大性, 了知廣大補特伽羅法無我故.)
 - 精進大性：精進의 偉大性, 세 阿僧祇劫 동안 무수한 修行을 닦아야만 하는 것. (四精進大性, 於三大劫阿僧祇耶方便勤修無量難行行故.)
 - 方便善巧大性：善巧한 方便의 偉大性, 生死와 涅槃, 그 모두에 머무르지 않는 것. (五方便善巧大性, 不住生死及涅槃故.)
 - 證得大性：如來의 여러 가지 힘과 無畏와 不共佛法 등의 무수한 공덕을 갖는 고로 몸으로 체득하는 偉大性. (六證得大性, 得如來諸力無畏不共佛法等無量無數大功德故.)
 - 業大性：생사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깨달음을 성취시키고 광대한 佛事를 건립함을 보여 주는 고로 作用의 위대성. (七業大性, 窮生死際示現一切成菩提等建立廣大諸佛事故.)
- (18) 「顯揚論」을 인용하며 大乘의 性格을 설명하는 부분에서의 實踐德目은 다음과 같다.⁷⁷⁾
- 法大性：十二分教 중 菩薩藏에 포괄되는 方便은 광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敎說의 偉大性. (一法大性, 謂十二分教中菩薩藏所攝方便廣大之教.)
 - 發心大性：더 이룰 데 없는 올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이미 드러냈기에 發心의 偉大함. (二發心大性, 謂已發無上正等覺心.)
 - 勝解大性：앞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偉大性들의 경지를 잘 믿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뛰어난. (三勝解大性, 謂於前所說法大性境起勝信解.)
 - 意樂大性：뛰어난 이해와 행위를 이미 초월하고 깨끗하고 뛰어난 意樂의 상태에 들어갔기에 意樂의 偉大性. (四意樂大性, 謂已超過勝解行地入淨勝意樂地.)
 - 資糧大性：福德과 智慧의 偉大性. (五資糧大性, 成就福智二種大資糧故 能證無上正等菩提.)
 - 時大性：세 阿僧祇劫 동안 이룰 데 없는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었기에 時間의 광대함. (六時代性, 謂三大劫阿僧企耶時能證無上正等菩提.)
 - 成滿大性：菩提 자체의 원만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원만함을 이루는 위대성. (七成滿大性, 謂即無上正等菩提自體所成滿菩提自體 比餘成滿自體尙無與等 何況超勝.)
- (19) 起信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다음 揭頌을 살펴 보면서 釋題名에서의 實踐德目 研究을 마치기로 한다.

76) ① 疏, p.6. 「二者如對法論云……」
 ② 李箕永 譯, 前揭書 「韓國의 佛敎思想」, p.57참조.

77) ① 疏, p.6. 「二者顯揚論云……何況超勝」
 ② 李箕永 譯, 上揭書, pp.57~58.

「信爲道元功德母，增長一切諸善根。
 除滅一切諸疑惑，示現開發無上道。
 信能超出衆魔境，示現無上解脫道。
 一切功德不壞種，出生無上菩提樹。」⁷⁸⁾

(믿음은 진리의 根本 功德의 어머니, 모든 善의 뿌리를 길숙히 내리게 하네.
 일체의 疑惑을 없애 가지고
 더 없는 眞理의 빛을 밝히네,
 믿음은 모든 惡魔의 境界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이없는 解脫의 眞理를 밝히어 주네,
 모든 功德은 파괴되지 않는 씨앗,
 더없는 보리수를 싹틔워 키우네.)

2. 分別發趣道相에서의 實踐德目

이 部分에서의 實踐德目を 살피기 전에 「分別發趣道相」부분의 골자를 표를 통하여 보면 다음 표-11과 같다.⁷⁹⁾

(1) 信成就發心에서의 實踐德目

A. 十信의 實踐德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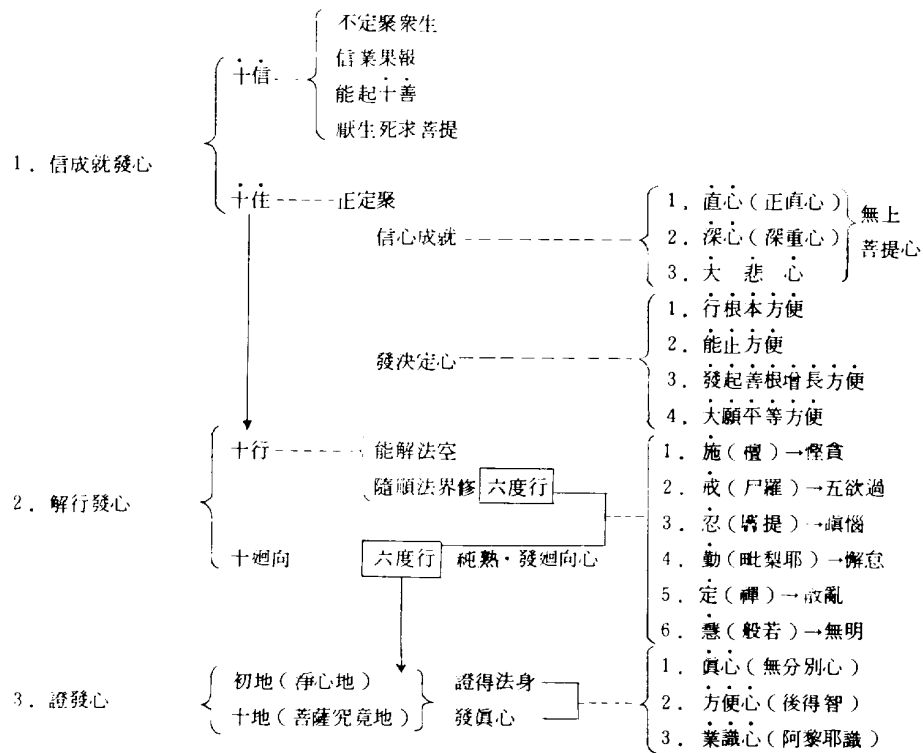
그러면 표-11에 따라서 十信(初心菩薩이 닦는 열 가지 信心으로, 부처님의 教法을 얻어 疑心이 없는 지위)의 實踐德目を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⁰⁾

- 信心(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
- 念心(어떻게 念할 것인가를 아는 것)
- 精進心(어떻게 精進할 것인가를 아는 것.)
- 慧心(어떻게 智慧를 닦을 것인가를 아는 것.)
- 定心(어떻게 散亂한 마음을 安定시킬 것인가를 아는 것.)
- 不退心(어떻게 굳게 進進할 것인가를 아는 것.)
- 護法心(어떻게 眞理를 지키는 것인가를 아는 것.)
- 廻向心(어떻게 實踐의 方向을 잡을 것인가를 아는 것)
- 戒心(어떻게 行動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
- 願心(어떻게 所願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

78) 疏, p.7.

79) 李箕永, 前揭書, 「元奘思想」, pp.323~324집주.

80) 上揭書, p.221.



< 표-11 >

B. 十善의 實踐德目⁸¹⁾

19面에서 十善의 實踐德目を 살펴 보았다. 즉 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惡罵, 不兩舌, 不綺語, 不貪, 不瞋恚, 不邪見을 살펴 보았다.

C. 十住의 實踐德目⁸²⁾

十住란 十信을 닦아서 마음의 眞諦의 空한 이치에 安住하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住라 하는데 다음과 같다.

- 發心住(마음을 올바로 먹는 것)
- 治地住(마음을 가다듬는 것)
- 修行住(올바로 생활하는 것)
- 生貴住(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81) 論, p. 83참조.

「所謂依不定聚衆生 有熏習善根力故 信業果報 能起十善 厭生死苦 欲求無上菩提. 得值諸佛 親承供養. 修行信心 經一萬劫. 信心成就故.」

82) 李箕永, 前揭書, p. 222.

- 具足方便住(모든 좋은 方法을 다 쓰도록 하는 것)
- 正心住(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 不退住(빛결승질까지 앞으로 노력하는 것)
- 童眞住(어리애처럼 순진하고자 하는 것)
- 法王子住(선리의 相續者가 되고자 하는 것)
- 灌頂住(지혜의 물을 정수리에 받는 것)

D. 信心成就 부분에서의 實踐德目

다음의 세 가지 마음을 發하여 無上菩提心을 얻는다는 것이다.⁸³⁾

○直心：眞如만을 생각하는 바른 마음, 主客分裂이 아닌 主客一致의 平等性을 지닌 마음, 즉 「내」가 참으로 「내」가 되는 일이며 同體意識인 마음⁸⁴⁾

○深心：깊은 마음, 일체의 모든 착한 행위를 즐겨 모으는 깊은 마음을 지니는 것, 歸心源하는 마음.⁸⁵⁾

○大悲心：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든 衆生을 남김 없이 苦痛 속에서 구제(救濟)하겠다는 뜻을 가진 마음.⁸⁶⁾

이것을 표를 통하여 보면 다음 표-12와 같다.⁸⁷⁾

信心就發心	{	直心	→	止惡	→	攝律儀戒 (大乘菩薩이 악을 없애 온갖 善戒를 보존하는 것)
		深心	→	修善	→	攝善法戒 (대승보살이 온갖 善을 닦는 것)
		大悲心	→	攝衆	→	攝衆生戒 (대승보살이 大悲心으로 衆生을 교화하는 것)

<표-12>

계속하여 眞如歸順하는 四方便의 實踐德目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行根本方便

根本眞理의 適用實踐임. 허망한 생각에서 떠나 있고 生死에 집착하지 않는 것, 불쌍히 여기

83) 疏, p. 86참조.

「發此三心 無惡不離, 無善不修 無一衆生所不度者 是名無上菩提心也。」

84) 論, p. 85참조.

「一者直心, 正念眞如法故。」

疏, p. 86참조.

「初中言直心者 是不曲義, 若念眞如 則心平等 更無別岐 何有廻曲, 故言正念眞如法故。」

85) 疏, p. 86참조.

86) 疏, p. 86참조.

「大悲心者 是普濟義故言欲拔衆生苦故, 即利他行之本也。」

87) 吳果山, 前揭書, p. 278.

는 마음을 내어 여러 가지 福德을 닦고 모든 衆生을 교화하고 홀로 열반에 머무는 일이 없는 것.⁸⁸⁾

○能止方便

罪過를 짓지 않고 罪過를 끊는 일, 허물을 뉘우치고 一切의 惡法을 그치는 일.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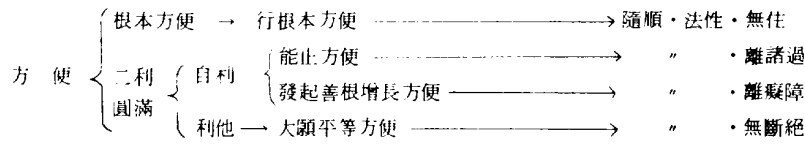
○發起善根增長方便

착한 마음씨를 일으키고, 그것을 더욱 발휘시키는 것, 佛法僧의 眞義를 알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공경하는 마음과 行動을 다하며 훌륭한 깨달음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⁹⁰⁾

○大願平等方便

모든 人類에게 平等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願을 發하는 것, 영원하게 모든 衆生이 眞理를 체득(體得)하도록 하게 하겠다고 願을 발하는 것.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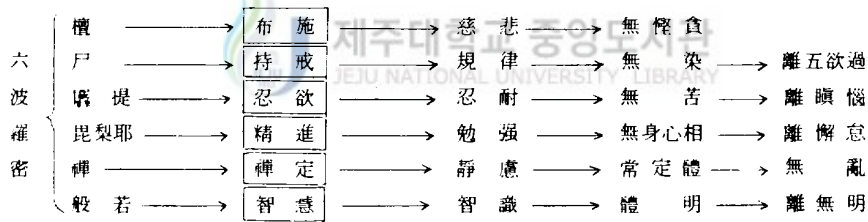
이상 네 가지를 표를 통해서 보면 다음 표-13과 같다.⁹²⁾



< 표-13 >

(2) 解行發心の 實踐德目

여기서 강조되는 實踐德目은 22面에서 살펴보았던 바 있는 六波羅密이다.⁹³⁾ 다시 표로 보면 다음 표-14와 같다.⁹⁴⁾



< 표-14 >

88) 論, p. 85 참조.

「一者行根本方便, 謂觀一切法自性無生, 離於妄見, 不住生死, 觀一切法因緣和合, 業果不失起於大悲, 修諸福德, 攝化衆生, 不住涅槃。」

89) 論, p. 86.

「二者能止方便, 謂斷愧悔過, 能止一切惡法不令增長, 以隨順法性離諸過故。」

90) 論, p. 86.

「三者發起善根增長方便, 謂勤供養禮拜三寶, 讚歎隨喜, 勸請諸佛, 以愛敬三寶厚信心故, 信得增長, 乃能志求無上之道, 又因佛法僧力所護故, 能消業障善根不退, 以隨順法性離障礙故。」

91) 論, p. 86. 「四者六願平等方便, …究竟寂滅故。」

92) 吳果山, 前揭書, p. 287.

93) 上揭書, p. 296 참조.

그리고 解行發心을 지닌 者들은 十行, 十廻向의 地位에 있는 것으로 十行, 十廻向의 實踐德目을 살펴보자.

A. 十行

十住位에 의하여 佛子の 認可를 얻은 뒤에 더 나아가 利他的 修行을 하기 위하여 衆生을 이 돕고 기쁘게 하는 단계로 다음과 같다.⁹⁵⁾

- 歡喜行(기쁨으로 사는 것)
- 饒益行(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는 것)
- 無瞋恨行(원한, 분노 없이 사는 것)
- 無盡行(청정히 사는 것)
- 離癡亂行(이리적이고 문란함이 없이 사는 것)
- 善現行(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
- 無着行(執著 없이 사는 것)
- 尊重行(사람, 물건 등을 존중하며 사는 것)
- 善法行(올리기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
- 眞實行(실감되게 사는 것)

B. 十廻向

이 十廻向의 단계는 十行을 닦은 다음에 다시 지금까지 닦은 自利, 利他的 여러 가지 行을 一切衆生을 위하여 돌려 주고, 이 功德으로 佛果를 향해 나아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지위로써 다음과 같다.⁹⁶⁾

- 救護一切衆生離衆生相廻向(모든 衆生을 救護하되 그들이 남이라는 생각없이 대하는 것)
- 等一切諸佛廻向(衆生을 부처님 보듯 대하는 것)
- 至一切處廻向(아무 곳도 등한히 없이 일하는 것)
- 無盡功德藏廻向(좋은 일을 남김없이 다하여 일하는 것)
- 入一切平等善根廻向(모든 衆生에 보편적인 善한 本性이 드러나도록 일하는 것)
- 等隨順一切衆生廻向: 모든 衆生의 정도에 따라 그들과 하나가 되도록 일하는 것.
- 眞如相廻向: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드러내고자 일하는 것.

94) 論, p. 87.

「解行發心者 當知轉勝 以是善薩從初正信已來, 於第一阿僧祇劫將欲滿故, 於眞如法中 深解現前 所修難相, 以知法性無慳貪故 隨順修行檀波羅密, 以知法性無染 離五欲過故 隨順修行尸波羅密, 以知法性無苦 離瞋惱故 隨順修行喜提波羅密, 以知法性無身心相 離解怠故 隨順修行毗梨耶波羅密, 以知法性常定 體無亂故 隨順修行禪波羅密, 以知法性體明 離無明故 隨順修行般若波羅密。」

95) ① 李箕永, 前揭書, pp. 222~223 참조.

② 金萬權, 「佛敎學入門」(대우: 3榮出版社, 1977), p. 202.

96) ① 李箕永, 前揭書, p. 223.

② 金萬權, 前揭書, p. 202.

○ 無縛無着解脫廻向：속박도 장애도 없는 자유를 향해 일하는 것.

○ 入法界無量廻向：無限한 진리의 世界에 들어가고자 일하는 것.

(3) 證發心の 實踐德目

「證發心」은 法身菩薩의 마음가짐인데, 한 刹那의 생각에 능히 十方의 온 세계에 남김없이 도달하여 諸佛을 받들어 섬기고, 衆生의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워, 그들을 인도(引導)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菩薩의 지위이다.⁹⁷⁾ 여기서 證發心 세 가지 특징인 眞心, 方便心, 業識心을 살펴보고, 菩薩十地의 實踐德目を 알아보기로 하자.

○ 眞心：참된 마음, 분별이 없는 마음.

○ 方便心：스스로 두루 행하여 衆生이 이익되게 하는 方便이 自在한 마음.

○ 業識心：業識의 마음, 미묘하게 일어나고 소멸되는 마음.

계속하여 菩薩十地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歡喜地(Pramudita)

진실한 희열에 가득찬 지위로 마음이 깨끗한 경지, 기쁨이 넘쳐 흐르고 바른 믿음과 願望, 精勤이 있어, 남을 시기함도 해침도 성냄도 없다. 眞理에 대한 信念을 增大시키고 大慈大悲의 마음을 具足하기에 게으름이 없고 慚愧로써 心身을 장엄케 하며 참아 견디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 지위에서는 「내」가 執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린 까닭에 소유물에 대한 애착도 없다. 「나는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만 하리라」고 생각하는 외에 존경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이 지위에서 「大捨」와 「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 離垢地(Vimala)

잘못이 없어 맑고 깨끗한 지위, 十善業道の 戒波羅密(Shila Paramita)을 잘 지켜 彼岸의 功德에 이르는 위치이다. 이 지위를 얻으려면 十種直心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十種이란 柔軟心·調和心·堪受心·不放逸心·寂滅心·眞心·不雜心·無貪欲心·勝心·大心 등이다.

○ 發光地(Prabhakari)

智慧의 光明이 나타나는 지위, 진리의 말을 찾아 그것을 배우기에 열중하는 多聞과 그리고 禪定の 길을 밝는다. 이 多聞과 禪定の 결과로 얻어진 慈悲喜捨 즉 사랑과 희생의 靈的 빛이 나타나는 地位이고 忍辱波羅密이 實現되는 地位이다. 이 地位는 마땅히 十種深心으로 노력하라는 것인데, 十心이란 淨心, 猛利心, 厭心, 離欲心, 不退心, 堅心, 明盛心, 無足心, 勝心, 大心이다.

○ 焰慧地(Arcishmatip)

지혜가 더욱 熾盛한 지위, 精進波羅密을 더욱 實現하여, 게으름 없는 精進, 잡것에 물들이 없는 精進, 뒤로 물러감이 없는 精進, 넓고 큰 精進, 無邊한 精進, 一切 衆生을 성숙시키는 精進 등을 빠짐없이 가지는 地位이다. 이 地位는 十法明門으로 노력하라는 것인데, 그 十이

97) 論. p. 88 참조. 證發心者…較細起滅故

란 觀察衆生界 觀察法界, 觀察世界, 觀察虛空界, 觀察識界, 觀察欲界, 觀察色界, 觀察無色界, 觀察勝信解界, 觀察大心界 등이다. 이렇게 하여서 十種智를 얻는다는 것이다. 十種智라 함은 心不退轉, 於三寶中 得不壞心, 畢竟清淨, 修習觀生滅, 修習諸法本來不生, 常修習世間成壞, 修習業因故有生, 修習分別生死涅槃門差別, 修習衆生業差別, 修習前際後際差別, 修習現在常滅不住 등이다.

○ 難勝地(Suduriya)

지혜와 지식의 調和를 이룩한 지위, 如實性(tathata)에 도달한 地位이 된다. 이 地位는 本願力을 가지고 일체의 衆生을 구제하기 위해 福·智의 資糧을 모아 부지런히 善方便을 성취하는 지위이다. 모든 智慧와 善根을 오직 衆生의 안락과 구호를 위해서 발동한다.

○ 現前地(Abhimukhī)

삼 마음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난 지위, 一切法이 無性·無相·不生起·寂靜하여 본래 청정(淸淨)하고 不取不捨하여 有無不二한 平等性을 가짐을 心得하는 地位이다. 일체의 有爲法(원상 세계)이 모든 부정(不淨)으로 더러워져 있으나 본래는 不生不滅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大悲의 마음을 일으켜 중생을 버리지 않는 까닭으로 「無礙智現前」이라 부르는 般若波羅密의 住가 光明을 갖추고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 遠行地(Durāṅgamā)

기해로운 方便을 가지고 멀리 가는 지위,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大悲願에 任하면서 善方便을 성취해 간다. 四無量心(慈悲喜捨)을 성취해 있으면서 無上한 자기완성을 길을 행하지만 어떠한 法에도 집착함이 없다. 無量한 衆生界에 파고 들어가 衆生을 無量한 지혜로 인도한다.

○ 不動地(Acala)

다시는 더 동요함이 없는 지위, 이미 七地(遠行地)를 익혀서 方便道가 조출하고 助道法을 善集하여 大願力을 具하여 諸佛의 神力에 守護되어 스스로의 善根으로 得力하고 항상 如來力과 無畏의 不共法에 隨順하기를 생각하여 直心 深心이 淸淨해서 福德과 智慧를 성취하였으며 大慈大悲로 衆生을 不捨하고 無量한 智道를 修行하여 諸法의 本來無生 無起無相 無成 無壞 無初 無中 無後함에 입(入)하고 如來智에 入하여 一切의 心意識의 憶想分別에 貪著하는 바가 없는 地位이다. 일체중생에 있어서 自在한 者가 된다. 수명(壽命)의 自在性, 마음의 自在性, 業의 自在性, 願의 自在性, 法의 自在性, 智의 自在性을 얻는다.

○ 善慧地(Sadhūmatī)

지혜의 힘으로 옳게 引導할 수 있는 지위, 十八不共佛法⁹⁸⁾의 하나하나를 淨修하여 大悲의

98) ① 李箕永, 「菩薩의 道」, 耕智社 編, 「絶望을 넘어선」 現代人の 叢書 7, 1서출: 耕智社, 1966, pp. 232~246.

② 金東華, 「佛敎敎理發達史」(해설: 三榮出版社, 1977), pp. 461~9.

99) ① 李箕永, 前掲書, 「佛敎概論」, p. 19참조.

② 朴先榮, 前掲書, 「佛敎의 敎育思想」, pp. 130~131.

1. 身無失, 2. 口無失, 3. 意無失(身·口·意 三業에 있어서 過失이 없는 것), 4. 無異想

加持속에 머무르는 地位이다. 法과 義와 辭와 辯才에 있어서 無礙한 智를 얻는 地位이다.

○ 法雲地(Dharmamegahā)

大慈悲의 구름처럼 된 地位, 모든 행실이 원만하며 福德과 智慧를 무한히 쌓아 광대한 大悲속에 살며 세상이 세 아무리 복잡다단 하더라도 그속에서 善方便을 교묘히 쓸 줄 알며 如來의 境界를 그리는 지위이다. 오직 불타만이 가지는 독특한 힘과 偉業을 觀想하면서 모든 것에서 무한 무량한 大繁若을 실현하는 것이다. 法界의 光明이 그 머리 위에 있어 그 光明의 구름으로부터 불가사의한 涅槃의 加持力에 의하여 마련된 각가지 장엄한 신비의 비, 大慈悲의 비를 뿌리는 지위인 것이다.

이상으로 十地菩薩의 단계를 살폈다. 第一地 歡喜地에서는 凡夫地를 넘어서 如來의 집에 새로 태어났던 것이다.¹⁰⁰⁾ 自利利他행의 끈기가 생기고 그것에 입각하여 무수한 大願이 세워졌다. 第二地 이후는 그런 誓願의 實現過程이라 하겠다. 부처님의 집에 태어난 菩薩은 第二地에 오자 現實世界로 돌아옴으로써, 인륜생활의 기초훈련부터 착수해 나갔다. 그러나 自利利他的 實踐은 항상 菩薩의 목표가 되었다. 自利利他的 힘은 자기의 해탈의 지혜에서도 우러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智慧와 人格鍊磨에도 마음을 기울였다. 이리하여 自利利他를 힘쓰는 중에 空의 철저화(第六地인 現前地)라는 고계에 이르렀다. 또 고계를 넘어 菩薩個人的 努力으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 이루는(無功用) 부처님의 크나큰 바다에 들어가는 일이 된다.(第八地인 不動地) 第八地 이후에 있어서는 오로지 부처님의 引導를 따름으로써 더욱 깊이 부처님의 世界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第十法雲地는 一切智智의 경지를 최고도로 실현하는 것이다.

元曉의 「起信論疏」에서 十地思想의 관련점을 설명한 것을 토대로 李箕永 博士는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었다.¹⁰¹⁾



1. 業生에 대한 平等心, 5. 無不定心(禪定에 의한 마음의 安定), 6. 無不知已捨(모든 것을 유용하고 버리기 않는 힘), 7. 欲無減, 8. 精進無減, 9. 念無減, 10. 定無減, 11. 慧無減(衆生齊度의 欲, 精進, 念力, 禪定, 智慧에 있어 減退함이 없는 것), 12. 解脫無減(解脫로부터 벗김을 잃지 않는 힘), 13~18. 六神通, 13. 宿命通, 14. 天眼通, 15. 漏盡通, 16. 天耳通(세계의 모든 소리를 듣는 힘), 17. 神境通(自由로써 世界를 변화시키려고 나타내는 힘), 18. 他心通(他人의 마음을 투철하게 洞察하는 힘)

100) 王城康四郎, 『華嚴經의 世界』, 李元燮譯 (서울: 玄岩社), 1976, pp.316 ~ 318.

101) 李箕永, 前掲書 「元曉思想」, pp.220 ~ 221.

- ① 歡喜地 —— 淨心地(아름이 깨끗한 경지)
- ② 離垢地
- ③ 發光地
- ④ 焰慧地 —— 具戒地(윤리적 덕성이 다 갖추어진 경지)
- ⑤ 難勝地
- ⑥ 現前地
- ⑦ 遠行地 —— 無相方便地(대상에 집착함이 없이 모든 方便을 구사하는 경지)
- ⑧ 不動地 —— 色自在地(대상적인 사물에 구애받지 않는 경지)
- ⑨ 善慧地 —— 心自在地(자기 마음에 결박됨이 없는 경지)
- ⑩ 法雲地 —— 菩薩盡地如來地(보살로서의 수행이 다한 如來의 경지)

〈丑-15〉

3. 修行信心分에서의 實踐德目

앞의 세가지 發心에 이르지 못한 비로소 낮은 단계의 衆生들을 위해 信心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修行信心分의 實踐德目を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뜻은 分別發趣道相의 것과 별차이가 없다는 것이다.¹⁰²⁾

(1) 施: 베풀어 주는 것

○財施: 인색하고 탐욕한 생각을 버려 구하러 온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¹⁰³⁾

○無畏施: 平和와 安全을 베풀어 주는 것, 社會의 福祉를 平和를 위해서는 自己利益을 위주로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世界的 平和와 社會의 安寧·福祉를 沮害하는 一切의 內的·外的要素에 대한 破邪顯正의 行爲는 同體無緣大悲(전체를 위한 條件없는 慈悲)의 정신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⁴⁾

○法施: 眞理를 베풀어 주는 것.

자기의 名譽나 利益이나 尊敬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남의 救濟를 위해 利

102) 論, p. 92.

「已說解釋分, 次說修行信心分是中依未入正定聚衆生 故說修行信心。」

疏, p. 92.

「上說發趣道相中 言依不定聚衆生, ……而其所趣道理無別也。」

103) 論, p. 93.

「若見一切來求索者 所有財物隨力施與 以自捨慳貪 令彼歡喜。」

104) 李箕水, 前揭書, pp. 365-367.

論, p. 93.

「若見厄難恐怖厄逼 隨已堪任 施與無外。」

益을 줄 수 있게 피기를 원하며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⁰⁵⁾

(2) 戒：倫理를 지키는 것.

○不十惡業：十惡業을 짓지 말 것.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十善業과 꼭 같은 내용이다. 즉 죽이지 말고, 도적질 말고,姦淫하지 말고, 모략, 중상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貪欲한 생각 말고, 시기·질투·분노하지 말고 그릇된 주장 가지지 말라는 것 등이다.¹⁰⁶⁾

○出家한 者는 欲心을 주리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生活態度를 가지며, 작은 罪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남의 誹謗을 받지 않도록 하고 衆生들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¹⁰⁷⁾

(3) 忍：참고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참고, 마음 속에 원수값을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자기를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훼방, 칭찬, 苦痛, 安樂 등 모든 일을 참고 용서하는 것.¹⁰⁸⁾

(4) 進：부지런히 힘쓰는 것.

작한 일에 마음이 懶怠하거나 勇氣를 잃음이 없이 뜻을 굳게 세워 겁내거나 나약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功德을 부지런히 닦아 自利利他하여 모든 괴로움을 떠나게 한다는 것.¹⁰⁹⁾

○懺悔로 諸惡業障을 없앴.

○勸請으로 바른 眞理를 비방함이 없게 함.

○隨喜로 남을 누르고 이기고자 하는 질투심을 막아냄.

○廻向으로 이 世上의 모든 파멸한 運命에 있는 一切 것에 대한 욕심과 執著을 막아냄.

(5) 止觀：마음의 散亂함을 막고 그 道理를 살피는 것.¹¹⁰⁾

「起信論疏」에서, 禪定과 般若의 두 德目の 止觀 하나로 묶어 설명되고 있는데, 元曉가 九種心住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선 9種心住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5) 論. p. 93.

「若有衆生來求法者 隨已能解 方便爲說. 不應貪求名利恭敬 唯念自利利他 廻向善提故.」

106) 論. p. 93.

「所謂不殺不盜不淫 不兩舌不惡口不妄語不綺語 遠離貪嫉欺詐謔曲瞋恚邪見.」

107) 論. p. 93.

「若出家者 爲折伏煩惱故 亦應遠離讚闍 常處寂靜. 修習少欲知足頭陀等行. 乃至小罪 心生怖畏 慚愧改悔. 不得輕於如來所制禁戒. 當護譏嫌 不令衆生妄起過罪故.」

108) 論. p. 93.

「云何修行忍門. 所謂應忍他人之惱 心不懷報. 亦當忍於利衰毀譽稱譏苦樂等法故.」

109) 論. p. 93.

「云何修行進門. 所謂於諸善事 心不懈退. 立志堅強 遠離怯弱. 當念過去久遠已來 虛受一切身心大苦 無有利益 是故運動修諸功德. 自利利他 遠離衆故. 復次若人雖修行信心. 以從先世來多有重罪惡業障故. 爲邪魔諸鬼之所惱亂 或爲世間事務種種牽纏. 或爲病苦所惱. 有如是等衆多障礙. 是故應當勇猛精勤 晝夜六時 禮拜諸佛 誠心懺悔 勤請隨喜 廻向善提 常不休廢. 得免諸障 善根增長故.」

110) 李箕永, 前掲書, pp. 374~395 참조.

- 內住：因果關係로 일한 對象世界때문에 산란해진 마음을, 한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¹¹¹⁾
- 等住：對象世界에 집착(執着)된 마음을 차츰 정화(淨化)하여, 거처론 생각을 억누르고 미세하게 함.¹¹²⁾
- 安住：內住, 等住가 되었다가도, 한번 생각을 잘못하여, 다시 散亂하게 되면 또 마음을 잘 집중하게 함.¹¹³⁾
- 近住：이 세상 만물은 본래 우리가 집착(執着)한 만한 특수한 本質의 性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깨닫고, 마음을 안으로 집중(集中)시키고, 그 마음을 바깥 對象에 멀리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 것.¹¹⁴⁾
- 調順：어러가지 모양(相)이 마음을 散亂하게 하는데, 소리, 色·聲·香·味·觸 등 五根이 일으키는 煩惱와 흠·曠·癡의 三毒과 男女의 모양 등이 그것이다. 이런 모양들이 禍根이 된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을 막고, 흠어지는 마음을 잘 조절하여 순(順)하게 함.¹¹⁵⁾
- 寂靜：어러가지 欲心과 자기·감투·원한·해침 등 모든 憊을 잘 살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 散亂한 마음을 없애, 고요하게 하는 것.¹¹⁶⁾
- 最極寂靜：산후 올게 생각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다시 동요가 생길 때, 이것을 계기모 다음 마음의 동요를 극복하여 자각과 고요한 마음을 얻는 것.¹¹⁷⁾
- 專住一趣：어러가지 方便을 써서 노력하여 조금도 결함없이 부단히 계속되는 三昧가 생기는 것.¹¹⁸⁾
- 等持：한없이 여러 차례 담고 닦아 이제는 별로 方便을 써서 努力함이 없어도 자유로이

111) 疏. p.95.
「謂從外一切所緣境界攝錄其心繫在於內不外散亂故名內住。」

112) 疏. p.95.
「謂即最初所繫縛心其性龜動未能令其等偏住故。次即於此所緣境界以相續方便澄淨方便挫令微細偏攝令住故名等住。」

113) 疏. p.95.
「謂若此心雖復如是內住等住。然由失念於外散亂。還復攝錄安置內境。故名安住。」

114) 疏. p.95.
「謂彼先應如是如是視近念住。由此念故數數作意內住其心不令此心遠在於外。故名近住。」

115) 疏. p.95.
「謂種種相令心散亂。所謂五塵三毒男女等相。故彼先應取彼諸相爲過患想。由如是想增上力故。於彼諸相折挫其心不令流散。故名調順。」

116) 疏. p.95.
「謂有種種劓害等諸惡尋思貪欲蓋等諸隨煩惱令心擾動。故彼先應取彼諸法爲過患想。由如是想增上力故。於彼心不流散。故名寂靜。」

117) 疏. p.95.
「謂失念故即彼二種暫現行時隨所生起然不忍受尋即反吐。故名最極寂靜。」

118) 疏. pp.95~96
「謂有加行有功用無缺無間三摩地相續而住。故名專住一趣。」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¹¹⁹⁾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外部世界의 자극과 유혹 등으로부터 동요됨이 없어, 평화롭고 고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인 九種心住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계속하여 네 가지 觀하는 方法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能正思擇: 무엇이 티없이 맑은 行爲이며, 무엇이 좋은 方便이며 무엇이 착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思惟分別하여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가려냄을 말하는 것.¹²⁰⁾

○最極思擇: 修道者가 對象世界를 보고 지극히 깊이 思惟分別하여 그 本性이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즉 그 眞如를 가려내는 것.¹²¹⁾

○周遍尋思: 修道者가 그를 둘러싼 客觀的 事物에 대하여 智慧로운 눈으로 分別할 뜻을 일으켜, 그 外的인 樣相을 남김없이 觀察하는 것.¹²²⁾

○周遍伺察: 修道者가 그를 둘러싼 客觀的 事物에 대해 그 意味를 찾아 남김없이 觀察하는 것.¹²³⁾

지금까지 九種心住와 四種毗鉢舍那의 實踐德目을 살펴보았는데 계속하여, 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起信論」에서「止」만을 익힌다면 마음이 갈아앉고 말아 게을러지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즐기지 않고 大悲의 利他行을 게을리할 우려가 있으므로 「觀」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¹²⁴⁾

○無常觀: 이 세상의 일들이 영원한 것이 없으며, 쉬지 않고 生成破壞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것.¹²⁵⁾

○苦觀: 모든 생각과 行爲는 妄念의 發動으로 인하여 생겼다 사라졌다 하되 그것이 모두 고통(苦痛)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고 觀察할 것.¹²⁶⁾

○無我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생각해 내는 모든 意識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自主性이 지닌 것이 아니라란 것을 관찰하고, 過去의 것은 꿈과 같고 현재의 것은 번개와 같고, 미래

119) 疏. p.96.

「謂數修數習數多修習爲因緣故 得無加行無功用任運轉道. 故名等持.」

120) 疏. p.96.

「謂於淨行所緣境界. 或於善巧所緣境界. 或於淨感所緣境界. 能正思擇盡所有性.」

121) 疏. p.96.

「謂即於彼所緣境界 最極思擇如所有性」

122) 疏. p.96.

「謂即於彼所緣境界 由慧俱行 有分別作意 取彼相狀 周遍尋思.」

123) 疏. p.96.

「謂即於彼所緣境界 審諦推求 周遍伺察」

124) 論. p.106.

「復次若人唯修於止 則心沈沒. 或起懈怠 不樂樂善 遠離大悲 是故修觀.」

125) 論. p.106.

「當觀一切世間有爲之法 無得久停 須與變壞」

126) 論. p.106.

「一切心行 念念生滅 以是故若.」

의 것은 구름과 같이 불안간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관찰할 것.¹²⁷⁾

○不淨觀：이 世上의 肉身은 모두 不淨한 것이며 가지가지 더럽혀져 있어 하나도 진실로 즐길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觀察할 것.¹²⁸⁾(이렇게 觀함으로써 이 몸에 대한 愛着이 없어지고 男女의 愛欲이니 權力, 財産, 名譽에 대한 貪欲과 虛榮心을 없애자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계속하여 「起信論」은 大誓願을 발하고 있다. 그것을 實踐德目으로 표하면 다음과 같다.¹²⁹⁾

○離分別：분별심을 떠날것, 모든 差別 對立的 意識을 없애는 것.

○修行一切諸善功德：모든 착한 일을 하고 功德을 닦을 것.

○求拔一切苦惱衆生：고통 속에 있는 衆生을 진지어 최대의 기쁨인 苦痛의 克服과 平和의 성취를 실현하도록 함을 말한다.



127) 李箕永, 前揭書, p. 393~393.

論, p. 106.

「應觀過去所念諸法 恍惚如夢, 應觀現在所念諸法 猶如電光, 應觀未來所念諸法 猶如於雲忽爾而起。」

128) 論, p. 106.

「應觀世間一切有身 悉皆不淨 種種穢汚 無一可樂。」

129) 論, p. 106.

「即應勇猛立大誓願令我心離分別故 遍於十方修行一切諸善功德, 盡其未來 以無量方便救一切苦惱衆生 令得涅槃第一義樂。」

IV. 結 論

元曉가 「大乘起信論」을 중요시하여 獨創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였고 또한 여러 經典을 참조하여 종합적인 면에서 「大乘起信論」을 풀이하였다.¹³⁰⁾

II章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覺일 수도 있고 不覺일 수도 있다. 원래는 인간의 마음이 참되고 한결같은 깨달음(本覺)이지만, 無明에 가려지게 된다. 그래서 貪欲과 嫉視와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 인간의 屬性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어두움(無明) 속에만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깊이 간직된 如來의 씨앗이 있어 覺의 상태로 가는 能力이 있다.

凡夫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努力여하에 따라서 부처의 경지에까지 갈 수 있기도 하고, 한없는 타락의 경지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II章에서 살펴본 實踐德目은 人間裏面의 心的本性을 開顯하여 부처의 경지로 향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겠다.

우리는 양의 實踐德目들을 訓話學的 立場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十善業 중에서 不殺生하면 단순한 不殺生이 아니라 大乘의인 面에서 大宇宙的 全體生命의 自覺으로부터 오는 理性律로써 영원 절대한 本體의 自我의 生命을 自他와 함께 실현하는 데 뜻을 두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物件을 정성껏 대하는 정신도 포함되겠다.) 또 不偷盜면 내것 아닌 所有物을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탐욕이라는 衆生心自體를 깨달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元曉가 한 이야기를, 1300餘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그 精神을 알고 옳게 適用하느냐 하는 것은 꼭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適用해 보기로 하자. 元曉가 「大乘起信論」에서 밝힌 名句 「衆生六根 從一心起 而背自原 馳散六塵 今舉命總攝六情 還歸其本一心之原」에서 示唆를 얻어 다음과 같이 適用해 본다.

人間行動이 잘, 잘못은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뜻(意)을 잘 움직이거나 잘못 움직여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六根(眼, 耳, 鼻, 舌, 身, 意)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이것은 克己와도 관계가 있겠고, 節制하는 行動과도 관계가 있겠다. 六根을 利己의이고 享樂的인 데에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손과 발이 되어주고 하는 利他的인 面으로 많이 쓰게 해야겠다는 것이다.

130) ① 疏. pp. 4~5.

「所述難廣……庶同趣者消息之耳」 참조.

② 李箕永, “經典引用에 나타난 元曉의 獨創性”, 「韓國佛教研究」 서울: 韓國佛敎研究院, 1982. pp. 368~9.

결국 元曉思想의 實踐德目觀에는 人間存在의 참모습을 밝혀주는 것이며, 人間 自身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改造하여 보려는 內容으로 充滿되어 있음을 본다. 이 世上에 幸福과 繁榮과 平和를 가져다 주는 일과, 모든 人間으로 하여금 그 참된 모습을 알고 虛妄한 一切의 그릇된 생각(煩惱)을 없애고 참 人間의 姿勢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더 말한다면 元曉思想의 根柢에는 歸一心源, 饒益衆生, 自利利他的 精神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元曉思想의 實踐德目を 世俗的인 實踐德目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과 더불어 眞諦的인 實踐德目觀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元曉思想이 現代精神과 조화를 찾고, 옹기 적용하고 해석하는 문제는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參 考 文 獻

〈原典〉

1. 馬鳴菩薩造論，梁天竺三藏譯
海東沙門元曉疏，并別記「大乘起信論疏記會本」。(海印寺 所藏)

〈著書〉

2. 金大隱·黃永眞·朴允瑚，「元曉」，서울：三藏苑，1981.
3. 金東華，「大乘佛教思想」，佛教思想全集3，서울：京城文化社，1982.
4. ———，「佛教教理發達史」，대구：三榮出版社，1977
5. ———，「佛教學概論」，서울：寶蓮閣，1984.
6. 金萬權，「佛教學入門」，대구：三榮出版社，1977.
7. 金俊艱，「佛教教育學」，부산：佛教出版社，1981.
8. 대원정사 편，「100문 100답」，서울：대원정사，1987.
9. 朴先榮，「佛教의 教育思想」，서울：同和出版公社，1981.
10. 邊密耘，「韓國과 佛教」，서울：虎岩出版社，1986.
11. 沈載烈，「元曉思想」，(11) 倫理觀，서울：弘法院，1983.
12. 亞細亞學術研究會編，「韓國民族思想史大系」，2古代編，서울：형설출판사，1982.
13. 安啓賢，「韓國佛教史研究」，서울：同和出版公社，1981.
14. 梁銀容 編，「新羅元曉研究」，이리：圓光大學校出版局，1979.
15. 吳杲山，「大乘起信論講義」，서울：寶蓮閣，1980.
16. 玉城康四郎，「華嚴經의 世界」，李元燮 譯，서울：玄岩社，1976.
17. 元曉，「金剛三昧經論」，李箕永 譯，(韓國名著 大全集)，서울：大洋書籍，1978.
18. ———，「大乘起信論疏」，成樂乘 譯，韓國의 思想大全集，서울：同和出版公社，1972.
19. ———「大乘起信論疏別記」，李箕永譯，「韓國의 佛教思想」，서울：三省出版社，1983.
20. 尹絲淳·高翊晉編，「한국의 사상」，서울：열음사，1985.
21. 李平來(書評)，「大乘起信論」，東亞日報社編「역사를 움직인 100권의 책」，新東亞，1984年 1月號 附錄.
22. 李箕永，「菩薩의 길」，金亨錫編，「絶望을 넘어서」，現代人叢書 7，서울：耕智社，1966.
23. ———，「佛教概論」，서울：韓國佛敎研究院，1982.
24. ———，「佛敎와 社會」，서울：韓國佛敎研究院，1978.
25. ———，「元曉」申一徹 編「韓國代表思想家」，韓國思想全書 1卷，서울：玄岩社，1976.
26. ———，「元曉思想」，讀書新聞社 編「韓國史의 再照明」，서울：讀書新聞社，1977.

27. ———, 「元曉思想」, (1) 世界觀, 서울: 弘法院, 1980.
28. ———, 「韓國佛教研究」, 서울: 韓國佛教研究院, 1982.
29. ———(書評), 「大乘起信論疏·金剛三昧經論」, 玄岩社編, 「韓國의 名著」, 서울: 玄岩社, 1980.
30. 李種益, 「佛教思想概論」, 서울: 宣文出版社, 1983.
31. ———然, 「三國遺事」, 李丙壽 譯註, 서울: 廣曹出版社, 1977.
32. 趙明基, 「新羅佛教의 理念과 歷史」, 서울: 新太陽社, 1962.
33. ———, 「元曉大師全集」, 서울: 寶蓮閣, 1979.
34. 崔岐洪, 「韓國倫理思想史」, 서울: 星文社, 1983.
35. 韓國思想研究會 編, 「韓國思想史」, 서울: 法文社, 1966.
3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의 民族文化」,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37. 韓國哲學研究會 編, 「韓國哲學研究」, 上, 서울: 東明社, 1982.
38. ———編, 「韓國哲學研究」, 下, 서울: 東明社, 1982.
39. 韓基斗, 「韓國佛教思想研究」, 서울: 三志社, 1982.
40. 韓定燮 編著, 「起信論·三論」, 서울: 法輪社, 1980.
41. 韓鍾萬, 「佛教과 儒敎의 現實觀」, 이리: 圓光大學校出版局, 1981.
42. 江田俊雄, 「朝鮮佛教史의 研究」, 日本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 52年.
43. 明石惠達, 「兩譯對照 內容分科 大乘起信論」, 日本京都: 永田文昌堂, 昭和 46年.

〈論文〉

1. 高翊晉, “元曉思想의 實踐原理.” 崇山 朴吉眞 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教思想史」, 원불교 사상연구회, 1975.
2. ———, “元曉의 起信論疏·別記를 통해 본 眞俗圓融無碍觀과 그 成立理論,” 佛敎學報 제10집, 1973.
3. 金聖煥, “元曉의 大乘思想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76.
4. 金順錦, “大乘佛敎의 믿음에 대한 一考察.”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1976.
5. 金鍾宜, “元曉 和靜思想의 理論的 構造.”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1985.
6. 金恒培, “元曉, 一心思想의 本質과 그 論理的 構造,” 國土統一院, 「元曉研究論叢」, 1987.
7. 魯權用, “起信論 一心思想의 成立史的 考察.”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1977.
8. 閔泳珪, “元曉論,” 思想界, 1953年 八月號.

9. 朴性培, “元曉思想展開의 問題點,” 金奎榮博士華甲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東西哲學의 諸問題」, 1979.
10. 殷貞姬, “起信論疏·別記에 나타나 元曉의 一心思想.”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1982.
11. ———, “大乘起信論의 眞如緣記說의 研究.”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1972.
12. 李箕永, “元曉의 倫理觀: 菩薩櫻路本業經疏를 中心으로”, 國土統一院, 「元曉研究論叢」, 1987.
13. 李洋姬, “元曉의 如來藏思想研究”, 석사학위 논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14. 李鍾益, “元曉의 平和思想”, 「平和思想의 摸索(아카데미論叢 제11집), 서울, 一念, 1983.
15. 李平來, “如來藏說과 元曉”, 國土統一院 「元曉研究論叢」, 1987.
16. 洪庭植, “元曉의 思想과 生涯”, 「韓國의 佛教文化」, 서울, 時事英語社, 1985.
17. Edward. Conze. “慈·悲·喜·捨에 관하여.” 「佛敎研究 1」, 서울, 韓國佛敎研究院, 1985.
18. Ock Hee Pyun. “The Understanding of Faith in Wonhyo and Karl Jaspers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Christian Faith in Korea.” Theological D. dissertation. Basel University. ——— .



Abstract

The Practical Ethics of Wonhyo's Commentary and Notes
o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Goh, Jum-yong
Department of National Ethics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ung-Joon

Wonhyo is one of the holy man in Korean history. He lived an active life in serving the people. He interpreted Koean Buddhism in a Korean way by his Commentary o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etc.

The book contains five parts:

0. Outlook, Subjects Explanation
1. Reasons for Writing the book
2. Outlines
3. Interpretation
4. Practice of Faith
5. Benefits to be received from Practice.

「Outlines」 and 「Interpretation」 are explaining One-Mind, Two Aspects, Three Greatness. 「Practice and Faith」 and 「Benefits of Practice」 are explaining Four Faiths, Five Practices.

This thesis aims at investigating the next.

1. The Summary of Enlightenment and Non-enlightenment in the Wonhyo's Commentary o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2. Practical Ethics contained in Wonhyo's Commentary on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Wonhyo considered the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āyāna as the only book which summarized and treated most consistently the basic teachings of Mahāyāna Buddhism and therefore as the best of all the Buddhist treatises.

We must rightly interpret and accommodate the Practical Ethics in ordinary life.